

미래엔 교과서  
**자습서**



**정답과  
해설**

## 1 한국 문학의 길

### 01 옛 노래 감상하기

 **제망매가**

|| 월명사

**+** **확인문제**

• 13쪽

01 ① 02 ④: 부모, ⑤: 누이 03 ②

**01**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승려인 월명사가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10구체 향가이다. 바람, 잎, 한 가지 등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⑤ 죽음과 삶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한 가지에 나지만 바람에 흩어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뭇잎처럼 인간의 삶도 이승에서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어도 죽으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③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만든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

④ '4구+4구+2구'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10구체 향가이다.

**02**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여러 잎이 열리'는 것은 '나'와 '누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비유하고 있다. 또, '잎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잎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누이가 죽은 이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03** 「제망매가」의 시적 화자와 〈보기〉의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과 헤어진 상황이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보기〉의 '우리는 만날 때에~믿습니다.'에서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한 상황이지만, 임과의 재회에 대해 믿고 있음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혈육에 대한 애정은 「제망매가」의 시적 화자와 관련 있다.

③ 절대자에 대한 복종은 두 작품의 화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두 작품의 시적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기보다는 현실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⑤ 「제망매가」의 시적 화자는 죽음을 불교적으로 초월하고 있으나 〈보기〉의 시적 화자는 죽음을 통해 슬픔을 초월하고 있지 않다.

**+** 배경지식 더하기

한용운, 「님의 침묵」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임과의 이별
성격	상징적, 의지적
주제	임을 향한 영원한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적 어조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함.</li> <li>•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li> <li>• 불교의 윤회설에 바탕을 두고 있음.</li> </ul>

 **속미인곡**

|| 정철

**+** **확인문제**

• 15쪽

01 ⑤ 02 ① 03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훈더이고 04 ② 05 ④

**01** 제시된 부분에서 역설법, 점층법, 의인법을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사 문학도 시조와 마찬가지로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②, ③ 이 작품은 정철이 전남 창평에 은거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방식으로 노래한 연군 가사이다.

④ 이 작품은 「사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며, 「사미인곡」에 비해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2**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첫 번째 화자인 여인 1이 여인 2에게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작가의 분신에 해당하는 여인 2가 이에 답하며 자신의 서러운 사연과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토로하는 형식으로 노래를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화자의 '니별(離別)하고'는 두 번째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밝힌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두 번째 화자(여인 2)는 '이내 소설 드러 보오'라며 첫 번째 화자(여인 1)에게 자신이 이별한 심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③ 두 번째 화자(여인 2)는 '원망하며', '허물후라'라면서 임과 이별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④ 첫 번째 화자(여인 1)의 '글란 심각 마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하는 뜻이다. 즉, 첫 번째 화자가 두 번째 화자의 이별의 사연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이다.

⑤ 두 번째 화자(여인 2)는 첫 번째 화자(여인 1)에게 마음에 담아 둔 '미친 일'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하고 있다. 여기서 '미친 일'은 임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점, 즉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점과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일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의미한다.

**03** <보기>에서는 여성을 화자로 내세우면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의 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화자는 '데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라고 하여 두 번째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 주고 있다.

**04** '님 다히 소식을 더욱 아득흔더이고'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화자가 임의 소식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느낀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신하로서의 그리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노고'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방향하고 있는 화자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③ '반벽 청등은 밝혀 줄 대상이 없다는 것으로 이 구절은 신하로서의 외로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정성이 지극후야 꿈의 님을 보니'는 꿈에서라도 임금을 보고 싶어 하는 신하의 충성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어엿븐 그림재 날 초출 썬이로다'는 꿈속에서 잠깐 임을 보고 헤어진 화자가 느끼는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그림자만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신하로서 임금 곁에 있지 못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5** '디는 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임금을 비유한 표현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구름'은 화자의 임을 향한 마음을 방해하는 소재로, 정적, 간신을 비유한 표현이다.

② '일월'은 하늘에 밝게 떠 있는 존재로, 임금을 비유한 표현이다.

③ '물결'은 화자가 임에게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정적, 간신을 비유한 표현이다.

⑤ '낙월(지는 달)'은 화자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멀리서 임을 바라만 보는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다.

01 ⑤ 02 ② 03 임금 04 ③ 05 ② 06 ⑤ 07 ④  
08 예시 답안 참고 09 ③ 10 ②

**01** 「제망매가」의 배경 설화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 지전을 서쪽으로 날렸다고 했는데, 서쪽은 불교에서 서쪽으로 십만 억의 국토를 지나면 있는 아미타불의 세계를 의미하는 서방정토의 방향이다. 따라서 이는 주술적인 성격을 띤 비현실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바람이 지전을 날린 사실 때문에 화자의 슬픔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월명사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린 것과 누이의 죽음을 원망하는 것은 연관이 없다.

③ 월명사가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는 점만으로 향가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④ 월명사가 승려 신분이지만, 배경 설화를 통해 집단적 제의로 작품을 해석할 여지는 없다.

**02** 화자는 ㉠에서 불교적 믿음을 가지고 죽은 누이와 재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내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누이와 헤어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누이와 화자가 만나는 '미타찰'은 극락세계이므로 삶과 죽음의 경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내세인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모든 상황을 포기하고 체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가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잊고 있지는 않다.

**03** [A]에서는 정철이 은거 생활을 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속미인곡」을 지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속미인곡」의 '미인'은 정철이 그리워하는 대상인 '임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4** 「속미인곡」은 정철이 동인 세력의 탄핵을 받아 은거해 있던 시기에 쓴 작품으로, 임금에 대한 정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비해 표현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이다. '강호한정'은 자연을 즐기고 자연에 은거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속미인곡」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백옥경(白玉京)'은 궁궐을, '남'은 임금을, '구름', '안개', '부림', '물결'은 여인 2와 임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한다. 이처럼 「속미인곡」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활용함으로써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속미인곡」은 4음보 연속체의 율격을 갖춘 정격 가사로, 길이의 제한이 없다.

④ 충신연주지사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를 의미한다. 「속미인곡」은 화자가 충신으로서 임금을 연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충신연주지사에 속한다.

⑤ 「속미인곡」은 남성인 작가 정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성 화자로 설정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05** 「속미인곡」의 화자는 비록 입과 헤어졌지만 입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②에서 입이 갔지만 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입과 헤어졌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이별을 견뎌야만 새로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사랑을 위한 이별이라는 역설적 표현은 「속미인곡」과 어울리지 않는다.

③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의미이고, 나의 꽃이 되었다는 것은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속미인곡」의 화자는 입과 이별한 상황에서 입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을 뿐, 입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남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속미인곡」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의미로, 「속미인곡」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하늘을 우러러 양심적으로 뉘우친다는 의미로, 「속미인곡」과 어울리지 않는다.

**06** [A]는 자연의 영원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낸 시조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속성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시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인 '오백 년 도읍지'를 통해 아득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비하여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선경후정(仙境後情)'이란 처음에는 경치나 풍경에 대해 노래하다가, 뒤에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말한다. 이 시조의 앞부분에서는 오백 년 도읍지를 한 필의 말과 함께 돌며 산천의 모습이 옛날과 다르지 않다고 경치를 언급하다가, 뒷부분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오백 년 도읍지'는 고려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몰락한 왕조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07** 길재의 시조와 「제망매가」 두 작품 모두 일정한 시어가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제망매가」에서는 누이를 잃은 상실감을, [A]에서는 몰락한 고려의 수도를 돌아보며 느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제망매가」에서는 '아아'를, [A]에서는 종장의 처음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다.

③ 「제망매가」에서는 '4구(기)+4구(서)+2구(결)'의 3단 구성을, [A]에서는 '초장-중장-종장'의 3장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⑤ 「제망매가」의 화자는 누이를 잃은 경험을, [A]의 화자는 멸망한 고려를 바라보며 느낀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08** **예시 답안** 일반적으로 가사의 마지막 구절은 시조의 종장과 마찬가지로 첫 어절이 3음절로 되어 있다.

**출제 의도** 정격 가사의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형식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밑줄 친 구절이 가사의 마지막 구절임을 언급하고, 시조의 종장과 마찬가지로 첫 어절이 3음절(3글자)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서술해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밑줄 친 구절이 가사의 마지막 구절임을 언급하고 시조의 종장과 형식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서술한 경우	4점
밑줄 친 구절이 가사의 마지막 구절임을 언급하지 않거나, 시조의 종장에 나타난 형식적 특성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09** <보기>의 현대 시조 역시 대체로 전통적 시조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다만 <보기>에서는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4음보의 율격이 계승되고 있다.

② <보기>는 전통 시조와 마찬가지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종장의 첫 음보를 3음절인 '나그네'로 시작하고 있다.

⑤ 초장의 첫 부분인 '바람 없는 밤'은 전통적 시조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식이다.

10 「제망매가」는 누이와의 이별을 담은 개인적 서정시로, 시 대적 아픔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제망매가」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③ 「제망매가」는 10구체 향가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 말을 적은 표기법인 향찰로 기록되었다.

④ 「속미인곡」은 우리말로 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⑤ 「속미인곡」은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 25~27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④ 05 ② 06 ② 07 ⑤ 08 ⑤

09 예시 답안 참고

01 이 글의 화자는 시적 대상과 헤어진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죽은 누이와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화자가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아픔과 시련을 겪지 않기 바라는지는 알 수 없다.

④ 시적 대상은 죽은 누이로, 화자는 시적 대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⑤ 이 글의 화자는 시적 대상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

02 ㉠은 바람 불면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다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누이의 죽음’ 혹은 ‘유한한 인생’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누이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날 뿐, 누이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다.

03 [A]에서는 삶과 죽음의 길이 이곳(이승)에 있다고 하였고, [B]에서는 죽은 누이와 ‘미타찰(극락세계)’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A]와 [B] 모두 이승과 저승이 서로 다른 세계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A]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가까이 있다는 인식과 함께 죽음에 대한 화자의 두려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B]에서는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③ [B]에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이 나타난다. 하지만 [A]에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B]에서 죽음에 대해 초월한 화자의 태도는 느껴지지만 두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생사로’는 ‘삶과 죽음의 길’을 의미하므로, ‘생사로’까지가 한자의 뜻을 빌린 것이고 ‘은’은 조사로 한자의 음을 따서 적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향찰은 우리말의 어순대로 문장을 표기했다고 했고, 「제망매가」는 향찰로 작성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제망매가」는 우리말 어순대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를 고려하면 향찰로 쓰여진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의미 부분과 문법적 관계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보기>를 고려하면 향찰은 한자의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쓴 글자이다. 따라서 향찰로 쓰여진 이 글을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

⑤ <보기>의에서 「제망매가」는 우리말 어순대로 문장을 표기한 향찰로 쓰였다고 했다. 또 ‘생사로’는 ‘삶과 죽음의 길’이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생사로운’은 현재의 어순과 다른 점이 없다.

05 「제망매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제망매가」와 <보기> 모두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사상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보기>의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망매가」에서 창작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찾기는 어렵다.

⑤ 「제망매가」가 아니라 <보기>에서 주로 화자의 행위, 즉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김소월, 「초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임의 죽음
성격	전통적, 서정적, 민요적, 격정적, 애상적
주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반복법과 영탄법을 통해 격정적 어조를 표현함. ② 7·5조,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함. ③ 전통적 장례 의식과 망부석 설화를 소재로 사용함. ④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함.

06 화자는 임과 헤어진 이유를 자신과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화자가 임을 원망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 임과 헤어졌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으나 ㉡의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의 '구름'과 '안개'는 임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높은 곳에 올랐다가 임의 소식을 알고자 ㉢의 '물가'로 이동하고 있다.

⑤ 화자는 풋잠에 들어 임을 잠깐 보았으나, ㉣의 '계성'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고 만다. 따라서 '계성'은 꿈속에서나마 임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로, 화자에게 있어 원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07 <보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말을 빌어 쓴 시문보다 아이들이나 아낙네들이 우리말로 노래하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평하면서, 「사미인곡」에는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천박하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를 쓴 사람은 「사미인곡」이 우리말을 사용하여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참된 작품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08 <보기>의 화자는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특히 임을 '너'라고 부름으로써 임과 자신이 편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글의 화자는 '나'의 잘못 때문에 임이 '나'를 멀리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임이 돌아올 수 없거나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보기>의 화자가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③ 두 화자 모두 임과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갈래	사설시조	제재	임
성격	해학적, 과장적		
주제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안타까움		
특징	①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함. ② 열거법과 연쇄법, 점강법, 반복법 등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③ 해학적 표현과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함.		

09 **예시 답안** ㉠은 '궁궐'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이 글의 작가인 정철이 조정을 떠나서 이 글을 지었다고 하였으므로 '백옥경'은 '임', 즉 임금이 있는 곳인 궁궐을 의미한다.

**출제 의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이 '궁궐' 혹은 임금이 있는 곳을 정확히 밝힌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3점
㉠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썼지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 02 고전 소설 감상하기

 **추향전**

▣작자 미상

### **확인문제**

• 33~41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④ 05 ② 06 **예시 답안** 참고  
07 ④ 08 ④ 09 ① 10 ③ 11 ④ 12 ② 13 ① 14 ①  
15 일희일비

01 이 글의 서술자가 변 사또의 불만과 관련하여 (나)에서 ‘입맛이 사납겠다.’라고 편집자적 논평을 보이니, 그것에 대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에서 백성의 궁핍한 삶과 대비되는 변 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보며 심란해진 이몽룡의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표현하고 있다.

② 서술자는 이몽룡, 변 사또, 운봉 영장의 행동을 전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④ 서술자는 (나)의 처음 부분에서 변 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서술자는 ‘명관’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변 사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02 [A]에서는 수령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비롯해 변 사또의 생일잔치의 다양한 풍경을 나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A]에서는 변 사또의 생일잔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 상황을 과장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부분이나 사건의 환상성을 드러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A]는 변 사또의 호화스러운 생일잔치의 모습을 통해 변 사또가 탐관오리임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초월적인 인물이 아니다.

03 ㉠은 이몽룡이 잔칫상을 받고 음식을 실컷 먹은 뒤 본관 사또를 벌하겠다는 의도로 한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운봉 영장은 아직 어사또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② ㉠은 운봉 영장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다.

③ 본관 사또는 잔치의 격이 떨어지거나 잔치에 방해가 될까 봐 걸인의 출입을 금한 것이다. 앞일을 대비하여 이몽룡의 출입을 금한 것이 아니다.

0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벌어진 이후에 대책을 세운다는 뜻의 속담이다. (다)와 (라)에서 본관 사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라)에서 어사또, 즉 이몽룡이 지은 시를 제시한 후 ‘본관 사또는 몰라보는데’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관 사또는 이몽룡이 지은 시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본관 사또는 운봉이 이몽룡이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관속들을 단속한 후에도 술주정을 부리며 충항을 불려오라고 했다. 이를 통해 본관 사또는 마음을 놓고 있다가 곧 봉변, 즉 이몽룡으로부터 단죄를 받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05 (다)에서 어사또가 받은 상에 대해 ‘모서리 떨어진 개상 판에 닳나무 젓가락, 콩나물, 깎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은 어사또가 받은 잔칫상이 형편없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고 표현한 것은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슬퍼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반어적 표현이다.

③ 화자는 자신의 괴로움에 이유가 없다고 했고,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으며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고 했지만 결국 화자의 괴로움은 그 시대에 대한 슬픔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모든 의욕을 잃은 채로 힘들게 지내는 상황을 누워서 편히 지냈다고 한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다.

⑤ 시나 소설은 정신적인 가치를 상징하는데, 이런 것에는 소홀하고 물질적 가치에만 몰두한 이가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고 한 것은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06 **예시 답안** 백성들을 수탈한 탐관오리는 풍족하게 생활하였고, 백성들은 더욱 고통받았다.

**출제 의도** 이 작품에 삽입된 한시가 화려하고 풍족하게 생활하는 양반들의 모습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백성들과 탐관오리의 생활을 대조하여 당대 사회상을 언급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탐관오리(양반)의 화려하고 풍족한 삶과, 백성들의 궁핍하고 힘겨운 삶을 대조적으로 잘 서술한 경우	4점
탐관오리(양반)의 삶과 백성의 삶의 특징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2점

**07**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하고, 암행어사 출두 소리를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거나, 본관 사또의 모습을 멍석 구멍에 생쥐가 눈 뜨는 것에 빗대는 등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극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 개인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이 글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에 비속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⑤ 이 글에서 지배층의 생활을 과장해서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08** [A]는 어사 출두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출두 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준비하는 어사와 역졸들의 모습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다가, “암행 어사 출두야.”라는 말을 통해 독자에게 극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문맥상 사실적인 장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B]에 등장인물의 외양 묘사는 제시되어 있으나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B]에 공간의 이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A]에서는 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09** [B]는 어사 출두 후 수령들이 극도로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본관 사또가 당황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자포자기(自暴自棄)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아니다.

- 오답 풀이** ② 혼비백산(魂飛魄散):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 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위기일발(危機一髮):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을 이르는 말이다.

④ 인사불성(人事不省): 제 몸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⑤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이 붙은 상황을 뜻하는데 매우 위급함을 이르는 말이다.

**10** 춘향은 전날 이몽룡을 만났지만 이몽룡이 신분을 속인 탓에 관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사또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오답 풀이** ① 어사또는 ‘내 수청도 거역할까?’라며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였다.  
 ② 어사또는 이몽룡, 즉 춘향이 서방님이라고 칭하는 대상이다. 춘향이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 제’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어사또는 전날 밤에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④ 형리의 말을 통해 춘향이 본관 사또의 수청을 아니 들려 하여 옥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춘향은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의 말에 그런 분부를 하지 말고 자신을 죽이려면서 자신의 절개를 지키고 있다.

**11** [A]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내려오는 관장들을 ‘명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관장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담긴 반어적 표현이다.  
 ② ‘높은 바위, 푸른 나무’는 변치 않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춘향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빗댄 은유적 표현이다.  
 ③ ‘총암절벽~’이라는 구절과 ‘청송녹죽~’이라는 구절은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⑤ ‘변하리까’라는 의문형 표현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이다.

**12** ㉠은 수청을 들라는 어사또의 강요에 대해 답한 춘향이 향단에게 건넨 말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서방님, 즉 이몽룡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13** 춘향이 서울로 올라간 이유는 어사또가 데려 갔기 때문이지 임금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② 임금이 ‘춘향으로 정렬부인을 봉’한 것은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④ 이몽룡은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갔다.

**14** <보기>에서는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춘향과 이

몽룡이 맺어진다는 것은 「춘향전」의 이면적 주제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춘향이 자신의 지조를 지켜내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이면적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③ 춘향과 이몽룡이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결혼한 것은 <보기>의 표면적 주제와 관련이 있다.

④ <보기>에서 표면적 주제를 완성하는 조건은 권선징악의 실현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완성하려면 변 사또를 처벌했어야 한다.

⑤ 이몽룡은 양반 가문의 자제이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되지 못했더라도 춘향과 맺어졌다면 <보기>에서 언급한 이면적 주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의 바로 앞에서 ‘영귀(榮貴)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라면서 춘향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에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다는 뜻의 ‘일희일비(一喜一悲)’가 들어가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 42~46쪽

- 01 ⑤   02 ⑤   03 ⑤   04 탐관오리(권력층)   05 예시 답안
- 참고   06 ①   07 ②   08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 09 ⑤   10 ㉠: 풍자, ㉡: 해학   11 해학   12 ④   13 ②

**01** 변 사또는 춘향이 자신의 수청 들기를 거부하자 춘향을 옥에 가두고, 자신의 생일잔치에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도망을 가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변 사또의 행동에서 위기를 타개하는 기지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춘향은 몽룡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절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사랑과 약속을 중시하는 믿음이 강한 인물이다.

② 춘향은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변 사또의 횡포에 저항하며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③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를 벌하고, 춘향과의 사랑을 지키는 정의롭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다.

④ 변 사또는 춘향이 수청을 거부하자 춘향을 옥에 가두는 등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02** 조선 시대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고(①),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며(②), 신분 제도가 있어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였다(③). 조선 후기에 이르러 평민층의 의식이 성장하였고(④), 평민층들은 성장한 의식을 바탕으로 탐관오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춘향전」에서는 탐관오리인 변 사또를 이몽룡이 봉고파직하는 장면이 그려진 것이다.

**03** 「춘향전」을 춘향과 몽룡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이 글의 주제는 신분이라는 어려움을 초월하고 완성한 사랑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허례허식의 폐단 지적은 이몽룡과 변 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할 때 도출할 수 있는 주제이다.

② 「춘향전」에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 신분인 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는 나오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③ 약육강식의 세태에 대한 비판은 춘향과 변 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할 때 도출할 수 있는 주제이다.

④ 무능력한 지배층에 대한 응징은 변 사또와 몽룡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할 때 도출할 수 있는 주제이다.

**04** 조선 후기에 평민층의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탐관오리를 향한 비판도 거세졌다. 「춘향전」의 변 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는 명을 내렸지만 춘향이 이를 거절하자 춘향을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호화스럽게 생일잔치를 하기도 하는 등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춘향은 이러한 탐관오리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춘향의 모습은 탐관오리의 횡포에 저항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05** **예시 답안**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층에는 양반층과 평민층이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판소리계 소설은 보통 서민적인 성격을 띠는 부분이 많지만, 중간중간에 양반층이 쓰던 한시나 한자 어휘가 평민층의 언어와 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문제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독자층(향유층)과 연관지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양반층과 평민층 모두가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층(향유층)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층(향유층)에 양반층과 평민층 모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한 경우	4점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층(향유층)을 양반층과 평민층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6** [A]에서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은 이러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으로, 등장인물이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 오답 풀이** ② '인케 잃고(4) 강정 들고(4)/병부 잃고(4) 송편 들고(4)/탄건 잃고(4) 용수 쓰고(4)/갓 잃고(3) 소반 쓰고(4)'는 4(3)-4조로 단어를 반복하고 나열하여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③ 열거와 대구를 활용하여 수령들이 도망치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을 뒤바꾼 도치를 통한 언어유희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한문 투 어구를 사용하여 양반 계층의 취향도 고려하고 있다.

**07** '나'는 장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장인님'이라는 모순된 호칭을 사용하다가, 장인에게 역습을 당하는 순간에는 장인을 '빙장님'으로 높여 부르고 있다. 이후 상황이 더 불리해지자, 다시 '할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장인을 부르고 있다. 이는 '나'가 처한 위기 상황이 점차 고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가 어떻게든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장인에게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성례를 하는 것과 장인에 대한 호칭 변화는 관계가 없다.

③ 사건 전개상 '나'가 장인에게 호통을 친 사실을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④ 장인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것은 '나'가 장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상황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⑤ 장인에 대한 호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는 장인에게 복수할 기회를 만들지는 않는다.

**08** 장인이 성례를 시켜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나'를 데릴사위로 데리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나'를 머슴처럼 부리기 위해서이다. 장인이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나'를 회유하기 위한 계책이며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라는 부분에서 장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 있다.

**09** ㉠의 앞 부분에서 장인은 '나'를 치료해 주며 다독이고 있는데, '나'는 순박하고 어수룩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장인이 '나'에게 일을 계속 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고마워한다.

- 오답 풀이** ① 장인은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라고 '나'에게 약속하고 있을 뿐,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장인이 '나'를 다독이기는 했으나 '나'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  
 ③ '나'가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꼭 움치고 잡아났았기 때문에 장인이 '나'의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때린 것이다. '나'는 자신을 때린 장인의 행위를 고맙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④ 장인은 '나'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내달리다 '나'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의 까무러치게 되니까 '나'의 바짓가랑이를 놓았다. '나'는 이러한 장인의 행위를 '더럽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인의 행위에 '나'가 고마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10** [A]에서 풍자는 대상이 저지른 악행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고, 해학은 독자가 엉뚱하고 모자란 대상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과정에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11 <보기>에서 장인은 ‘나’에게 바짓가랑이를 잡히는데, 처음에는 욕박지르면서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나’가 더 힘을 주자 다급한 나머지 ‘할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런 장인의 모습이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A]에서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풍자와 해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보기>의 장인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웃음을 주는 장면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특징은 ‘해학’이라고 할 수 있다.

12 「춘향전」은 이전 시대의 봉건적 요소인 엄격한 신분 제도에서 벗어나 기생의 딸과 양반집 아들의 사랑을 다루는 등 근대적 가치관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춘향전」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봉건적 가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고전 소설이 오늘날의 소설에 비해 개연성보다는 우연적 요소가 많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전 소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이나 가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재창작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춘향전」의 표면적, 이면적 주제는 현대인에게도 의미 있고 교훈을 주기도 한다.

③ 「춘향전」에 나타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 해방, 지배 계층의 횡포에 대항하는 서민들의 비판 의식 등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신선함을 줄 수 있다.

④ 「춘향전」에 나타난 신분 제도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특성은 오늘날과 다를 수 있지만, 시대를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정서는 대중성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꾸준히 사랑받는다.

⑤ 「춘향전」에서는 수청을 들라는 변 사또의 불합리한 요구에 직면한 춘향이 이를 거절하고 끝까지 자신의 절개를 지킨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소단원 평가

49-53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③ 05 예시 답안 참고 06 ④  
07 ① 08 예시 답안 참고 09 ① 10 ② 11 ④ 12 ①  
13 ②

01 이 글에는 한시를 비롯해 한자어가 사용된 부분이 있으나, 이 글이 양반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해학적인 요소(언어유희)를 포함하고 있어 재미를 더하고 있다.

② (가)의 ‘지화자 동당실, (나)의 ‘탁’ 등에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장면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③ (가)의 ‘모여든다’ 등에서 현재형 시제로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⑤ 반복적인 음보율을 갖는 판소리 운문체(율문체)가 중간중간에 사용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다)의 어사또가 시를 짓는 장면에서는 ‘순식간에 글 두 귀를 지었’다고 했으므로 어사또에게 일필휘지로 시를 적어 내는 연기를 하라고 지도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악공과 기생들의 모습을 통해 변 사또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② (라)의 운봉은 어사또가 지은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울린다.

③, ④ (가)에서 운봉이 어사또의 모습을 보고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다면서 변 사또에게 어사또를 생일잔치에 초대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어사또가 걸인처럼 보이게 연출해야 함(④)을 알 수 있다. 또 운봉의 제안을 들은 변 사또가 하는 말에 대해 서술자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라고 평하고 있으므로, 변 사또는 어사또가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③).

03 (다)에서 어사또는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에도 호화스럽게 생일잔치를 연 본관 사또의 횡포 및 탐욕을 비판하여 시를 지었다. 따라서 어사또가 잔칫상을 잘 받았다고 해도 시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좌중 사람들이 잔치에서 자연스럽게 시를 짓고 있으므로, 당시에는 종종 있었던 문화로 짐작할 수 있다.

③ 운봉 영장은 걸인 행색을 한 어사또를 다소 무시하면서, 어사또가 시를 제대로 짓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놀이를 제한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④ 차운을 해서 시를 짓는 것은 당시 한시를 짓는 규칙 중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운봉 영장은 걸인 행색을 한 어사또가 잔치에 참석한 후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바꿔 보고자 시 짓기를 제안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04** (라)는 어사또의 시를 본 운봉 영장의 생각과 행동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인물의 행위를 과장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몽룡이 쓴 시를 본 후의 반응에 해당한다.
- ② 본관 사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 ④ 운봉이 관청의 곳곳을 단속하는 이유는 곧 출두할 암행어사를 대비하기 위해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문맥상 (라)는 시를 읽은 운봉이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05** 예시 답안 대구법, 단어들을 짝을 이루어 배치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대구의 표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A]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라 하더라도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A]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대구'라고 밝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A]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대구'라고 밝혔으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A]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대구'라고 밝히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6** ㉠은 이몽룡을 잔치판에 끼워 준 변 사또의 불쾌한 심정을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서술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에서 '기다리더라'라고 표현한 것은 서술자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냐.'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 ② '세상에 살아본들 무엇하리?'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 ③ '눈물 내림을 깨닫지 못할레라.'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 ⑤ '어찌 다 알 수 있으리오?'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07** 이 글에서 서술자는 어사또가 출두하기 직전에 긴장감을 형성하기 위해 서리, 역졸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

을 뿐, 어사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② 어사또 출두 장면에서 어사또는 행동과 말을 통해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사또 출두 후 객사로 자리를 옮겨 어사또가 자리에 앉은 후에는 춘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어사또 출두 장면에서 수령과 본관 사또 등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어사또가 춘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뒤, 춘향과 춘향 모는 안도하며 기뻐하고 있다.

**08** 예시 답안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 문과 바람, 물과 목을 뒤바꾸어 표현한 변 사또의 말에는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가 나타나며, 이는 매우 당황하고 있는 변 사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출제 의도** 특정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과 그 표현법이 거두고 있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언어유희 대신 '도치'라고만 서술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언어유희'라고 밝히고, 그로 인해 얻고 있는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언어유희'라고 밝혔으나, 그로 인해 얻고 있는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언어유희'라고 밝히지는 못했으나, 그로 인해 얻고 있는 효과는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9** [A]는 형리와 어사또의 대화로, 춘향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춘향이 옥에 갇힌 과정이 정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는 당대 관리층의 불합리한 권력 남용과 폭정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A]에서는 춘향의 억울한 옥살이 이유를 밝히고 있을 뿐, 이를 서민들의 당돌함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어사또의 위엄은 직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A]에서 사대부의 지배 의식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 ④ [A]는 춘향이 변 사또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한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변 사또의 억울함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A]는 신분 상승 욕구를 비판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10 변 사또가 춘향을 탐한 것은 춘향이 이몽룡의 부인이 되기 전이다. 따라서 ㉠은 본래 설화의 내용대로 「춘향전」에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춘향은 「춘향전」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의 내용을 실현하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춘향은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므로 ㉡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1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춘향이 기가 막혀’ 등에서 전지적 작가가 등장인물인 ‘춘향’의 마음을 알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보기> 역시 제삼자의 시점에서 도련님, 즉 이몽룡과 춘향의 재회와 춘향의 죽음으로 인한 이몽룡의 슬픔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윗글의 서술자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등장인물들을 외부에서 바라보며 내용을 전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변 사또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루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춘향과 이몽룡이 백년해로하는 행복한 결말인 반면 <보기>는 춘향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다.

③ ‘변고’는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를 말한다. 춘향의 신변에 변고가 생긴 것은 <보기>에만 해당한다.

⑤ 이 글의 춘향은 암행어사 출두 후에 이몽룡의 신분을 알게 되었고, <보기>의 춘향은 이몽룡이 어사가 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12 <보기>에서는 전통의 가치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전 문학 자체를 하나의 전통으로 본다면 고전 문학에서 지속할 부분을 찾거나, 고전 문학을 새로운 창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보기>는 고전 문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학의 근간과 바탕으로 삼자는 의미이다.

③ <보기>에서 고전 문학에서 현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④ <보기>는 고전 문학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자는 내용이 아니다.

⑤ 고전 문학을 해석할 때는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물론 현대적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3 <보기>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면서 판소리 운문체(울문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에서는 놀보의 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기’로 끝나는 행위를 나열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등장인물의 행위나 모습의 일부를 묘사하기는 했으나, 판소리 운문체는 보이지 않는다.

③ 등장인물보다는 풍경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판소리 운문체는 보이지 않는다.

④, ⑤ 등장인물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나, 판소리 운문체는 보이지 않는다.

▶ 배경지식 더하기

김영랑, 「춘향」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춘향의 일편단심
주제	• 춘향의 사랑과 정절 • 역사적 현실에 대한 분노와 번뇌
특징	① 정형적인 음률을 벗어나 산문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음. ② 춘향이 옥사(獄死)한 과정을 시간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③ 각 연마다 '오! 일편단심'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 03 현대 시 감상하기

 수라

| 백석

 확인문제

• 59쪽

01 ④ 02 ⑤ 03  참고

**01** 이 시는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정신적 고통은 ‘차디찬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3연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하고 슬퍼한다.’에서 거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화자가 거미를 발견하여 쓸어 버린 행위는 화자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③ ‘수라’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을, ‘차디찬 밤’은 거미가 살아가야 할 곳이 춥고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임을, ‘문밖’은 거미 가족이 버려진 공간으로 춥고 위험하지만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 시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활용하여 ‘거미’가 처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린다’, ‘이다’ 등 전체적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02** 이 시는 1연이 2행, 2연이 4행, 3연이 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이 시는 1연보다 2연에서, 2연보다 3연에서 행의 수를 더 늘려 가며 시의 내용과 시적 정서를 확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수라」는 거미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빗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영탄적 어조는 일반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아, 슬프다”, “오, 그리운 이여!” 등과 같이 감탄사나 감정의 직접적 폭발을 통해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라」에서는 이러한 ‘영탄적 어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는 ‘쓸어버린다’,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아물거린다’ 등 ‘~다’라는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수라」에서는 거미를 인간 존재의 상징으로 활용하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03**  가슴이 메이는 듯하고 서러움, 서럽고 슬픔 등

**출제 의도** 3연에 ‘아린 가슴’,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 등의 표현에 직접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음을 파악하고 조건에 따라 문장을 종결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3연에 제시된 어휘를 적절히 활용하여 가슴이 메이는 듯한 감정과 서러움, 슬픔, 아픔의 정서 등을 적절하게 쓴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3연에 제시된 어휘를 활용하여 한두 가지 정서만 표현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3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3연의 ‘아린 가슴,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 등을 활용하여 명사 혹은 명사형으로 서술한 경우	3점
3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지켜 서술한 경우	2점
3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활동 응용 문제

• 60~62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② 05 ② 06 ④

**01** 1연에서 화자는 새끼 거미를 보고도 무심히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그러나 2연에서는 큰 거미를 보고 가슴이 짜릿함과 서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3연에 이르자 화자는 거미에게 가슴이 메이는 듯한 감정과 서러움을 느꼈고, 급기야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미를 보고 반가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02** 점층법이란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여 마침내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수사법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는 점층법을 활용하여 연이 거듭될수록 시행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화자의 정서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03** 이 시는 ‘1연 → 2연 → 3연’으로 전개됨에 따라 행수가 점차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화자의 정서도 점차 깊어지고 확장되고 있다.

**04** 이 시의 거미 가족은 화자에 의해 문밖으로 내쫓기고,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의 모습과 비슷하다. 작가는 공동체적 삶이 붕괴되는 이러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시의 제목을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아수라'의 준말인 '수라'로 지은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가족 공동체의 삶을 표현한다는 것은 제목 '수라'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05** 〈보기〉의 반영론적 관점에 따르면 문학 작품은 창작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작가는 이 시를 통해 일제 강점하에 공동체적 삶이 붕괴되는 당대의 상황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06** 「수라」에서는 거미 가족의 시련을 통해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을, 「모닥불」에서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통해 소외된 존재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오답 풀이** ① 경쟁 사회를 그린 작품에서는 보통 서열, 사회 구조 내의 압박감 등을 다룬다. 그러나 「모닥불」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소외된 존재들의 외로움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② 「모닥불」은 현실에 순응하며 수용하는 자세보다는 삶의 고단함과 고독, 일시적 위안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허무감을 다루고 있다.  
 ③ 「모닥불」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소외된 존재들이 이루는 따뜻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 배경지식 더하기**

**백석, 「모닥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토속적, 산문적
제재	모닥불
주제	조화와 평등의 공동체적 합일 정신
특징	①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함. ② 현재와 과거 회상으로 전개됨. ③ 사물이나 사람을 열거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소단원 평가**

• 65~67 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예시 답안** 참고 06 ⑤  
 07 ⑤ 08 **예시 답안** 참고 09 ⑤ 10 ⑤ 11 ④

**01** 이 글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시이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수탈로 인해 고향을 떠나거나 가족이 헤어지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작가는 이러한 가족이 해체된 비극적 모습을 거미 가족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02** 화자가 1연에서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린 것과 같이 2연에서 큰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 것은 어미 거미(2연의 거미)와 새끼 거미(1연의 거미)가 헤어져서 겪고 있는 상황이 「수라」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거미 새끼는 화자가 문밖으로 자신을 쓸어 버렸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는 「수라」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② 2연의 거미가 어미 거미라면 화자가 1연에서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렸기 때문에 이 거미는 자식과 헤어진 것이다. 따라서 어미 거미와 자식이 헤어진 상황, 즉 「수라」의 상황에 처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④, ⑤ 이 글의 거미 새끼(1연), 큰 거미(2연), 무척 적은 새끼 거미(3연)는 서로 헤어져 있는 상황이다. 화자는 거미 가족이 모두 헤어져 있는 상황을 「수라」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3연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수라」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 거미를 큰 거미가 있는 문밖으로 보낸 것이다.

**03** 3연에서 「씩기도 전」이라고 한 것은 1연의 거미 새끼와 2연의 거미가 헤어진 사실을 안 화자가 느낀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연과 3연 사이에는 짧지만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1연에서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릴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② 화자는 2연에서 큰 거미를 보고 1연에서 자신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 거미와 혈육일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③ 1연의 「거미 새끼」의 「새끼」에는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의 의미가, 2연의 「새끼 있는 데」의 「새끼」에는 「자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④ 화자가 2연에서 큰 거미에게 「가라고」 한 것에는 「문밖」이 가족 간의 재회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04 화자가 3연에서 적은 새끼 거미를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는 행동을 한 이유는 헤어진 거미 가족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때문이지 화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거리가 멀다.

05 예시 답안 ㉠에서는 거미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화자는 아주 적은 새끼 거미가 가족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붕괴된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화자가 거미를 버리는 행위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제 의도 ㉠에 쓰인 표현 방법과 작가가 그러한 표현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문장에 쓰인 표현 방법을 정확히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담긴 소망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에 드러난 화자의 소망을 행동과 연결지어 서술한 경우	4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했으나, ㉠에 담긴 화자의 소망은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알맞게 썼으나, ㉠에 드러난 화자의 소망은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6 화자는 2연에서 ‘서러워한다’ 3연에서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나를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무서워 달아나 버리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보며 서러움을 느낄 뿐, 야속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2연에서 큰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면서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하고 있는데, 이는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거미 가족이 헤어진 것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다.

②, ③ 화자는 1연에서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2연에서 큰 거미를 문밖으로 버릴 때는 서러움을 느꼈다. 또 3연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릴 때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점차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3연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면서

지금은 가족끼리 헤어져 있어도 거미 가족들이 쉬이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08 예시 답안 일본의 수탈 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수라’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제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시의 내용과 제목(수라) 사이의 의미적 연결을 명확히 설명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쓰기가 제목을 「수라」라고 지은 이유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글쓰기가 제목을 「수라」라고 지은 이유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였지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9 <보기>를 고려하면 시적 공간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간에 시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다. 따라서 ‘문밖’을 비일상적 공간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차디찬 밤’은 시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이 쓰인 것으로 일제 강점하라는 우리 민족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한 표현이다. 방바닥의 거미를 쓸어 보내는 화자의 무심한 행동 이후 거미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비극적 상황의 시간적 배경으로, 거미 가족이 처한 안타깝고 혹독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11 이 글에서는 ‘버린다’ 등에서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보기>는 ‘헤매이었다’ 등에서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의 이러한 표현이 화자의 긍정적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거미 가족이, <보기>에서는 화자 자신이 가족 구성원과 헤어진 상황을 다루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차디찬 밤’과 같은 시어가, <보기>에서는 ‘바람, 추위’같은 시어가 현실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 ‘문밖’ 등은 화자의 처지가 아닌 거미들의 처지를 강조하는 반면 <보기>에서는 ‘쓸쓸한 거리’, ‘헌 샷을 깬 한 방’과 같은 공간적 배경은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이 글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고통을 직접 말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상처와 시련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배경지식 더하기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독백적, 반성적
제재	유랑인의 외롭고 무기력한 삶과 성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행: 가족과 떨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나'의 외롭고 고단한 삶</li> <li>• 9~19행: 지나온 시절에 대한 회한과 한탄,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절망</li> <li>• 20~23행: 운명에 이끌려 온 삶에 대한 인식</li> <li>• 24~32행: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향토적 시어와 방언이 사용됨.</li> <li>② 담담한 어조로 화자의 자아 성찰을 드러냄.</li> <li>③ 제목이 현지 출신인 주소 형식이며 내용은 편지의 사연에 해당함.</li> <li>④ 산문적 서술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삽표의 활용으로 운율을 형성함.</li> </ul>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 작품 해설

편지 형식을 빌려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의지를 담담하게 노래한 시이다.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어느 목수네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절망적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화자는 '갈매나무'와 같이 굳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향토적 시어들을 바탕으로 토속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애환을 형상화하고 있다.

## 04 현대 소설 감상하기

### 아홉 쪼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 확인문제

73~89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① 06 ② 07 ③ 08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나온 사람이요.” 09 ① 10 ④ 11 금테의 마비츠 안경 12 ③ 13 ⑤ 14 ③ 15 ③ 16 ① 17 ③ 18 ① 19 ④ 20 ③ 21 ① 22 ① 23 ⑤ 24 ② 25 ㉠: 권 씨, ㉡: 자존심

01 권 씨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나’는 권 씨에게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넌지시 설득을 하지만 권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응한다. 따라서 권 씨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흥보고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추어서~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에서 아내는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출산에 대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며 걱정하고 있다.

②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에서 아내의 말을 들은 ‘나’는 ‘권 씨’를 불러내 부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하고 있다.

③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에서 ‘나’의 걱정에 대해 ‘권 씨’는 위로해 주는 투로 변명하고 있다.

⑤ ‘미역 근이라 사 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 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는 출근했다.’에서 ‘나’는 아내에게 권 씨 내외의 병문안을 가 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02 ㉠은 권 씨와 권 씨 아내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복은 부피가 큰 것을, 복채는 부피가 작고 가는 것을 가리키므로 임신 상태의 아내를 권 씨가 업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앞뒤 문맥상 ㉠은 권 씨가 임신한 아내를 업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권 씨가 ‘나’를 위로하는 모습이나 권 씨의 아내가 비탈길을 힘들게 걷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③ 실제 복을 이고 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⑤ 공간적인 측면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 개념 등을 공간적 위치나 분포와 관련지어 바라보는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과는 관계가 없다.

**03** 권 씨는 처음에 수줍어하며 말을 아끼다가, 갑자기 ‘나’에게 십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논리적이거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알리고는 있으나 ‘나’의 동정심을 최대한 유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4** 권 씨가 ‘제기랄’이라고 내뱉자 ‘나’는 평상시의 권 씨답지 않은 말이며 그가 처음으로 접잡지 못한 말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집을 살 때 생긴 빚과 아내 때문에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③ ‘나’는 권 씨가 자신을 기다리면서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구두를 문질러서 구두를 닦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④ ‘나’는 권 씨가 자신의 학교에 찾아 온 것을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나는 그 수줍음이~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 버리려 했다.’에서 ‘나’는 누가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불길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05** (라)에서 ‘나’는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듣고 권 씨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06** ㉠에서 말하는 ‘책임이 따르는 동정’이란 권 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나’가 권 씨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나’의 경제적 능력이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권 씨의 아이를 책임지는 것과 ‘나’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⑤ 권 씨를 도와주는 것이 권 씨의 무책임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07** <보기>에 따르면 권 씨는 고등 교육을 받고 회사에도 다녔다. 그러나 감옥에 다녀온 이후 삶이 피폐해졌고 ‘구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권 씨가 ㉠처럼 행동을 한 이유는 자신의 부탁을 ‘나’에게 거절당한 후 반짝거리는 구두의 상태를 유지하여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구두를 닦는 것과 권 씨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권 씨가 진땀을 흘리는 것은 부탁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존심이 꺾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시선을 끌기 위한 것도 아니다.

④, ⑤ 권 씨의 구두를 닦는 습관은 정신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8** ‘나’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고 돌아가던 권 씨가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라고 말한 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는 무능력하지만,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라는 것을 내세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09** 의사는 ‘나’가 빈정거리듯이 건넨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원장 부인은 ‘나’를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축하를 보냈고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감사 인사를 했다.

③ 원장은 ‘나’가 권 씨의 셋방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혀를 찼다.

④ 권 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나’에게 원망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를 통해 ‘나’는 의사를 비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에서 ‘나’는 권 씨가 가진 절실함을 깨달으며, 권 씨에게 전셋돈을 받은 사실까지 떠올렸으므로 전셋돈을 담보로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 자신이 권 씨에게 빚을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11** 이 글에서 의사가 쓰고 있는 금테의 마비츠 안경은 부유한 느낌을 주면서 의사가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임을 상징한다.

**12** ‘나’는 강도의 얼굴을 보고 강도가 착하게만 타고난 천성을 어찌지 못한 채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다.

**오답 풀이** ① 권 씨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

② 소심하기 때문에 맨 정신이 아닌 술의 힘을 빌려 강도 짓을 시도한 것이다.

④ 강도 짓이 처음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깨운 것이다.

⑤ 권 씨는 강도 행각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다.

13 「아홉 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이 시점은 사건을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의 감정과 해석이 사건 서술에 개입되어 서술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강도(권 씨)와 ‘나’가 나누는 대화와 강도의 행동 묘사를 통해 현장감을 주고 있을 뿐 인물을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웃음을 유도하거나 풍자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장황한 문체’나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간결한 대화와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14 ㉠은 술의 힘을 빌려서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⑤ 남의 집 담을 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15 ‘나’는 칼을 들이대는 강도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여유롭게 대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가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나’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나’가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가 상대방에게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 (카)에서 강도는 동준이의 발을 밟았는데, 이 때문에 동준이가 칭얼거리자 동준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동준이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다. 이를 통해 강도가 아이, 즉 동준이가 꺾까 봐 걱정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카)에서 강도는 ‘나’가 자신이 떨어뜨린 칼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랐을 뿐, ‘나’의 배려에 고마워하고 있지는 않다.

③ (카)에서 강도는 복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강도가 자신의 행동을 떳떳하다고 생각했다면 복면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④ (타)에서 강도는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나’에게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라고 하였을 뿐, ‘나’의 경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⑤ (타)에서 대청마루를 향해 나갈 때까지 강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17 ‘나’가 애당초 의도한 바는 강도에게 좋은 말을 해 줌으

로써, 강도의 마음을 안심시켜 강도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강도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며 강도를 안심시킨 후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했다.

18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인 권 씨를 관찰하며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한다.

③, ④, 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작품 속에 서술자가 존재한다.

19 권 씨가 ㉠처럼 행동한 것은 잠시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을 잊었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을 통해 권 씨가 강도 행각을 벌인 사실을 잊고자 했는지의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있다.

② 권 씨가 가지는 불만과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③ ‘나’는 권 씨의 구두가 잘 닦여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⑤ 권 씨의 행동을 통해 권 씨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음을 깨달은 권 씨는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럼 말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권 씨는 자신을 모른 척하는 ‘나’의 행동에 화가 났다.

②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이다.

④ 권 씨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일 뿐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권 씨의 말에서 가족을 부탁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21 <보기>는 권 씨가 강도 행각을 벌였던 날을 회고하며, 당시의 심정과 생각을 소회하는 내용의 소설이다. 이 글의 서술자는 오 선생이며, <보기>의 서술자는 권 씨이다.

오답 풀이 ② <보기>는 작품 속 인물인 권 씨가 서술자이다.

③ 이 글과 <보기>에서는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없다.

④ 이 글과 <보기>에서 독자에게 등장인물의 상황에 공감을 요구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

⑤ 이 글보다는 <보기>에서 권 씨 자신이 받았던 모욕과 충격 등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22** 권 씨는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 배려해 주는 ‘나’의 행동에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쳤고 이로 인해 행방 불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사라졌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권 씨는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 씨가 ‘나’에게 돈을 갚기 위해 떠났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23** 이 글에서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나타내며(㉠), 권 씨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물(㉡)이다.

**오답 풀이** ㉠ 권 씨의 가족애와 구두는 관련성이 없다.

㉡ 권 씨는 가난한 형편에서도 열 켄레의 구두를 항상 소중하게 보관하고 다루었으므로 구두가 경제적 수준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두가 권 씨의 과거 상처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24**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에서 ‘나’가 이 순경에게 연락한 것은 권 씨가 행방불명이 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문간방부터 살살이 뒤졌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에서 ‘나’는 사라진 권 씨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권 씨의 방을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잘 닦인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켄레의 그 구두가 쉽사리는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뜰뜰하게 깨달았다.’에서 ‘나’는 권 씨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④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살살이 뒤졌다.’에서 ‘나’가 일부러 아이들을 아내에게 딸려 보내고 나서야 권 씨의 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모두 해서 열 켄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일곱 켄레를 골라 한 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 온 모양이었다.’에서 권 씨가 한꺼번에 일곱 켄레의 구두를 손질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갈아 신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5** 이 글의 제목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권 씨(㉠)를 가리키며 남겨진 구두를 통해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권 씨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90~94쪽

- 01 ⑤ 02 ① 03 ③ 04 ② 05 ① 06 ① 07 ⑤ 08 ⑤  
09 ③ 10 ③

**01** 권 씨는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중에는 돈을 구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오답 풀이** ① 도시 빈민이지만 지식인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은 권 씨이다.

②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권 씨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권 씨를 돕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③ 의사는 생명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속물적 인물이다.

④ 의사는 금전에 집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유가 현재의 삶을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02**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나 ‘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거절을 한다.

**오답 풀이** ②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기는 했으나 권 씨의 아내가 수술을 거부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③ 의사는 수술비를 가져와야만 수술을 해 준다고 했으므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④ 병원에 갈 때 권 씨와 권 씨 아내는 갈등을 겪지 않았다.

⑤ 위급한 상황이지만 의사는 수술비를 먼저 내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는 권 씨를 중심으로 권 씨가 겪었던 부조리와 억압, 물질만능주의 속에서의 인간 소외, 도시 빈민으로서의 삶,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개인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 직업의 귀천과 관련된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04** 권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내의 출산 문제 등으로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

**오답 풀이** 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③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④ 앞날에 대한 기대나 긍정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⑤ 권 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라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05** 이 글에서 권 씨는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소외되어 가는 개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권 씨는 현실의 성공이나 세속적 가치와는 거리를 둔 채, 과거에 머물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권 씨는 물질적 안정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보다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④ 권 씨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고립된 인물로 현실을 타개하는 적극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⑤ 권 씨가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일에 대해 대응한 적은 있으나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다.

**06** 이 글은 권 씨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끝이 나지만 인물들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② 결말 부분에서 권 씨가 사라진 이유, 아홉 켈레의 구두가 상징하는 바 등이 모두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작품의 결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열린 결말은 독자마다 배경지식, 이해 능력에 따라 작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을 제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한 켈레의 구두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권 씨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작가는 결말에서 독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권 씨의 구두만 남김으로써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결말에 명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열린 결말이란 작가가 작품의 결말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았으므로 독자에게 자유롭게 결말을 상상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형식을 말한다.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이 결혼하여 정렬부인에게까지 오르는 등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춘향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춘향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③ 「춘향전」의 결말에서는 주인공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④ 편집자적 논평은 「춘향전」의 특징이다.

**08**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이다. 「아홉 켈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등장

인물에 대해 모의재판을 하려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각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쟁점으로는 ‘권 씨가 남의 집에 침입한 점과 강도 사건을 일으킨 것을 처벌해야 하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09** 이 글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 현실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졌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산업화 시대에 급속한 도시 개발로 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② 권 씨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왔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

④ 수술비를 먼저 지불해야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의 태도는 물질만능주의적이며, 작가는 이를 비판하고 있다.

⑤ 권 씨는 산업화 시대의 피해자로 전형적인 인물이다.

**10** 이 글에서 권 씨는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난 인물로 볼 수 있다. 만약 권 씨가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처럼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권 씨가 주변 사람들까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② ‘나’가 권 씨를 돕는 과정에서 ‘나’의 특권 의식이나 계층적 질서에 대한 생각을 찾기는 어렵다.

④ 이 글에서 ‘나(오 선생)’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나’는 도시화의 직접적인 촉진자라기보다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빈곤을 겪고, 이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겪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 선생의 아내는 권 씨 부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두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져온 개인주의적 경향과 일치하며, 공동체적 삶이 약화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

- 01 ① 02 ④ 03 ① 04 예시 답안 참고 05 ③ 06 ⑤  
07 ① 08 ① 09 ① 10 ④

01 권 씨와 ‘나’의 대화에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와 이를 거절하는 ‘나’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② 작품 내 서술자가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③ ‘나’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있으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⑤ 공간이 바뀌고 있으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02 (나)에 수술 비용이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에 대해 ‘나’가 생각하는 부분은 없다.

03 ㉠은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속담은 ①이다.

오답 풀이 ② 돈을 줄 상황이 아니더라도,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중에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③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므로 재물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다.

④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다.

⑤ 자신의 돈은 귀한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돈은 귀한 줄 모르는 뜻이나, ㉠의 상황은 돌려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겪을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예시 답안 비록 권 씨는 돈을 빌리러 다니는 (가난한) 처지이지만 지식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제 의도 인물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인물의 말에 나타난 의도를 파악하여 서술했다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권 씨’가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점
‘권 씨’가 ㉠과 같이 말한 이유를 1가지 <조건>만 지켜 서술한 경우	2점
‘권 씨’가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서술할 때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점

05 <보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한 [A]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내용상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 상황이나 긴장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면서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어 장면이 진행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권 씨에서 오 씨로 바꾸었다.

⑤ <보기>에서는 [A]의 대화 부분을 오 씨에 대한 권 씨의 생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06 작가는 권 씨를 자존심을 지키려는 인물로 설정하였으나, 부정적인 현실에 쉽게 적응하는 인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권 씨가 수술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이로 볼 때 의사는 돈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소시민적 특성을 가진 인물로, 권 씨에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다.

③ ‘나’의 아내는 권 씨 부부에 대해 흉을 보면서도 권 씨 부인의 출산을 걱정하며 우려하고 있다.

④ 권 씨는 임신한 아내가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지만, ‘나’가 이를 거절하여 난처한 상황에 있다.

07 ‘나’가 ㉠처럼 말한 것은 권 씨가 실수로 문간방에 들어가게 되면 권 씨 자신이 강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었다.

오답 풀이 ② 권 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권 씨가 가족을 원망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⑤ ㉠의 앞뒤 내용을 고려하면 ‘나’는 권 씨가 아이들을 보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08 평소에 권 씨는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신고 다니는데 이러한 행위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자존심을 상징하는 구두를 벗고 강도 짓을 하면서 겪은 일은 권 씨에게 큰 상처였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④ ‘나’는 권 씨가 잘 닦은 구두를 신었다고 생각했다.

09 [A]에서는 권 씨 가족이 사는 방안을 묘사하여 권 씨가 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㉑), 서술자인 '나'는 주인공 권 씨의 행동에 드러난 심리를 추측하여 권 씨를 평가하고 있다(㉓).

10 <보기>를 통해 이 순경은 권 씨의 과거 행적 때문에 권 씨를 관리하고 있으나, 권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이 순경이 '나'에게 권 씨의 친절한 이웃이 되어 잘 지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로 보아 권 씨가 이웃 사람들과 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권 씨가 이웃 사람들과 원만한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권 씨는 원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며, <보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③ <보기>를 통해서도 권 씨가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알 수 없다.

⑤ 이 글과 <보기>를 통해 권 씨가 가족보다 구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가)를 통해 권 씨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나)를 통해 권 씨가 행방불명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대단원 평가**

• 106~111쪽

01 ㉓ 02 ㉒ 03 **예시 답안** 참고 04 ㉓ 05 ㉓ 06 ㉓  
07 ㉒ 08 ㉑ 09 ㉑ 10 ㉑ 11 ㉒ 12 ㉓ 13 **예시 답안** 참  
고 14 ㉓ 15 ㉒ 16 ㉓ 17 ㉓

01 (가)의 화자는 혈육인 누이의 죽음이라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약한 인간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생사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 어찌 갑니까.'에 인간 삶의 유한성과 그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강하게 드러난다.

② 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죽은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④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것은 종교적 구도의 자세로 볼 수 있다.

⑤ 누이의 죽음에 봉착하여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02 (가)는 향가, (나)는 가사이다. 향가는 시조 등에 비해 특별한 음보율을 갖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향가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표기하는 향찰이 사용된 작품이다.

③ 향가의 형식은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뉜다. (가)는 10구체 향가이다.

④ 가사는 행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연속체다.

⑤ 가사인 「속미인곡」은 산문에 가까운 운문으로 4음보의 형식을 가진다.

03 **예시 답안** (가)는 10구체 향가로, 4구-4구-2구의 3단 구성과 낙구에 '아아'처럼 감탄사가 오는 형식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보기> 시조의 3장 형식과 종장의 첫 구가 3음절로 고정된 형식적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가)의 향가는 1~4구, 5~8구, 9~10구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기>의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가)의 3단 구성(기-서-결)이 <보기> 시조의 3장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가)의 향가에서 낙구 '아아'는 <보기>의 시조 종장의 첫 3음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출제 의도**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여 형식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여 비교하고, 향가가 시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 1개 이상 알맞게 서술한 경우에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보기>의 갈래를 밝히고 형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향가가 시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점
(가)와 <보기>의 형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향가가 시조에 미친 영향은 서술했으나 각각의 갈래를 밝히지 않은 경우	3점

04 '내 모습 둘 더 업다'는 화자의 임금에게 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 임금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작가는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책하고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임과 이별한 상황이 조물주 때문이라고 하며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05 [A]의 화자는 지는 달이 되어 임을 바라보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님'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을 먼 발치에서 잠깐이라도 보겠다는 것이므로 [A] 역시 '님'의 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화자의 일편단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낙월이 되어 임 계신 창 안에 비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임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② [A]에서는 낙월, 창 등에서 시각적 심상을, <보기>에서는 '범나비', '향기가 묻은 날개' 등에서 시각적, 후각적 심상 등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③ [A]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A]의 마지막에서 다른 화자가 주된 화자에게 달도 좋지만, 굶은비가 되라며 적극적으로 임에게 다가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06** ㉠은 여인 2의 말이며 여인 1의 위로를 듣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내용을 덧붙이려 한다.

**07**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동안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긍정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열린 결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사건의 발생 가능성 또한 없다.

④ 결말을 먼저 보여 주고 그 원인이나 과정을 나중에 보여주는 역순행적 구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극적 반전은 있으나 주인공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08** '동문서답'은 물음과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어사또의 질문에 대한 춘향의 답은 춘향의 의지를 드러내므로 동문서답과는 거리가 멀다.

**09** ㉠~㉣은 모두 서술자가 개입하여 편집자적 논평을 하는 부분이다. ㉡은 사실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므로 편집자적 논평으로 보기 어렵다.

**10** 문맥상 춘향이 영귀하게 되었지만 고향을 이별한다고 했으니, 그에 따른 아쉬움과 슬픔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⑤ 과거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거나 그 기억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11** '차디찬'이라는 촉각적 심상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대상이 겪는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어느 젠가, 가제' 등 평안도 방언이 사용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의 자연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⑤ '나린'에서 하강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나, 1연에서는 화자가 아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2** 이 글에서 시인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배제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③ 의인화를 통해 거미 가족의 이야기를 인간들의 이야기처럼 표현하고 있다.

④ 시인이 생각하는 가치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다.

**13** **예시 답안** ㉠: 행을 늘려 가며 시의 내용과 화자의 감정을 점차 풍부하게 ㉢: 짜릿한다 ㉡: 슬퍼한다

**출제 의도** 시의 형식적 특징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시의 구조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이해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시행의 구조와 감정을 표현하는 요소를 밝혀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6점
㉠~㉣ 중 두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14** 강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챈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 척하지만, 강도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난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 드러난 갈등은 강도와 '나'의 외적 갈등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개수작 매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아무도 안 믿어!"에서 강도가 이웃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여 사람에게 대해 불신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강도가 이웃에게 강도 짓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거나 내적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강도를 신고하기보다는 모른 척 행동하고 있다.

③ '나'는 어설픈 강도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나'는 강도의 말에 흥분하고 있지 않으며, 강도 또한 '나'를 해치려 하고 있지 않다.

**15** 이 글에서 강도는 구두를 벗고 '나'의 집에 들어와 강도 짓을 했다.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는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보기>에서 이른 아침부터 갖가지 구두를 꺼내놓고 구두를 닦고 있는 권 씨를 본 '나'는 권 씨에게 구두를 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질문을 들은 권 씨는 '나'를 차갑게 보았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이 글의 구두와 <보기>의 구두는 모두 강도와 권 씨에게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구두'는 권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상징한다.

16 작가는 권 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권 씨의 강도 짓에 대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소외된 빈민인 권 씨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구두만은 깨끗이 닦아서 신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② 권 씨는 ‘나’의 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다.

④ 작가는 권 씨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⑤ 작가는 권 씨의 삶을 통해 가난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 있음을 제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 속 소외된 계층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17 ‘식칼’은 심약하고 어설픈 강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자 ‘나’가 강도를 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나’는 강도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장대는 강도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향한 곳으로, 강도가 고민 끝에 정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② 강도는 몹시 긴장을 한 탓에 땀을 흘리고 있다.

④ ‘나’는 강도가 강도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식구가 아프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강도는 맨정신으로는 강도 행위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것이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강도에게서 술 냄새가 났을 것이다.

## 2 문제 해결의 지혜

### 01 논증하는 글 쓰기

#### + 확인문제

• 119~127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근거, 이유 10 ⑤ 11 귀납 논증 12 ① 13 ④  
14 ③

01 논증의 요소에는 주장, 이유,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이 있다. 글을 쓰는 이유인 목적은 논증하는 글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이다.

02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와 같은 쓰기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다.

03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자료를 수집할 때는 인터넷 누리집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 뉴스, 책,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③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해서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쓰기의 주제나 맥락에 따라 그중 일부는 글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⑤ 글쓰기 자료를 수집할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찾은 자료는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와 내용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04 자료 2는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때 자료 2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울특별시에서 집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비교할 때 활용하기 어렵다.

② 자료 2에 민원 접수 현황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의 통념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

④ 자료 2에는 전문가의 견해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자료 2에는 2015년~2018년까지의 수치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대적인 특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05** <보기>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 건수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소민이가 찾은 자료 중 자료 4는 글쓰기의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으며, 소민이는 유기견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보기>는 자료 4의 대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06** 논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언어 공동체가 주로 사용하는 논증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쓰며, 통일성 및 응집성이 잘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논증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한 편의 글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④ 시 등을 쓸 때 여운을 주기 위해 함축적인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  
 ⑤ 논증하는 글에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07** 논증하는 글에서 근거를 마련할 때는 사실적·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08** <보기>는 반례권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반례권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이다. 따라서 <보기>는 [A]의 본론 2에서 반례권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부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9** 논증 요소 중에서 이유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근거’이며, 이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유’이다.

**10** 4문단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 통시적인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글에 전문가의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도 않다.  
 ④ 1문단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있다.

**11** 대표적인 논증 방법에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있다.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고, 귀납 논증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이 글은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반례권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12** 자신이 쓴 글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 누리집의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으며 학교 교지에 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쓴 글을 공유하는 것이 자신이 쓴 글을 도서로 출판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은 아니다.

**13** [A]에서 ‘나라 사랑’의 댓글은 반례권 보유세라는 새로운 근거를 바탕으로 소민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14** 쓰기 윤리는 크게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글을 쓸 때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한다.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 인용한 자료라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경각심을 주기 위한 글이어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를 인용했다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를 사용한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도 글을 읽을 사람을 배려하여 글을 써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 128~132쪽

-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⑤   **06** ③   **07** ②  
**08** ④   **09** ①   **10** ④   **11** 단어 (수준)   **12** ⑤

**01** 기말고사 범위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탄소 중립은 인류 공동체가 함께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② 독거노인 복지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독거노인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 ④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의 인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02**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먼저 본인의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글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03**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즉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쓰기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③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독자를 예상하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 ④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쓴 글을 공유할 매체를 정하고, 매체의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 04**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자료의 출처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여도 글쓰기에 활용하지 않는다.
- 05** <보기>는 달리기의 효과에 대해 알려주는 신문 기사로,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자는 주장과 연관성이 낮다. 따라서 <보기>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06** 논증하는 글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글이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7** 예상 독자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은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08** 논증하는 글의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논증 요소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글에서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유비 논증 가운데 어떠한 논증 방법을 활용할지 정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 ②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 ③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⑤ 논증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자료들의 활용 방안을 정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 09** [A]에 드러난 주장은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자.’로 정리할 수 있다. 논증하는 글에서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을 의미하는데, 2문단의 축산업이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는 것, 3문단의 가축 사육을 위한 대규모 곡물 생산은 식량과 물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 4문단의 지나친 육식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5문단의 축산업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에 해당한다. 또 논증하는 글에서 근거는 선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를 의미하는데, 2문단의 가축이 트림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21배만큼의 온실 효과를 내는 매탄이 발생한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A]에서는 ‘주장-이유-근거’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드러나 있다.
- 10** 글 수준의 고쳐쓰기 단계에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해야 한다.
- 11** 문맥에 맞게 작성한 글의 단어를 수정하였으므로, 단어 수준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12**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쓰기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

- 01 ㉓ 02 ㉑ 03 예시 답안 참고 04 ㉑ 05 ① 06 ㉑  
07 ② 08 예시 답안 참고

01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오답 풀이** ① 쓰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글의 목적과 주제 설정, 예상 독자의 특성 분석, 글이 공유될 매체의 특성 분석 등을 토대로 쓰기 맥락을 고려한다.

- ② 글을 공유할 매체를 정할 때는 그 매체의 특성을 파악한다.
- ④ 어떤 글이든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⑤ 글쓰기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이를 글 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02 자료 5는 소방청에서 발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이다. 이는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 주는 자료이다. 자료 2는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 접수 현황 통계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 5를 삭제하기보다는 자료 2와 함께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3 **예시 답안** • ㉑: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 • ㉒: 자료 5, 개 물림 사고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㉑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㉓: 자료 2, 반려동물 소음 민원 접수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㉑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별하고 논증의 구조를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㉒과 ㉓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순서가 바뀌어도 그 이유가 적절하다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㉑을 한 문장으로 적절히 서술한 경우	2점
㉒과 ㉓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에서 적절히 찾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알맞게 서술한 경우	4점
㉒과 ㉓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에서 적절히 찾아 제시했으나, 그 이유를 알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04 논증하는 글을 작성할 때는 비유적 표현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요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05 이 글에서는 역사적 관점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다)에서 개 물림 사고의 실제 건수, 반려동물 소음 민원 건수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라)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④ (나), (다)에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06 논증하는 글의 작문 관습에 따르면 지나치게 문학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초롱초롱 동그란~흔드는 꼬리.’는 지나치게 문학적인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07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 요소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이고,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를 고려할 수는 없다.

08 **예시 답안** 귀납 논증, (다)에서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일, 반려견이 짓거나 뛰다니며 소음을 일으킨 일을 사례로 들어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논증의 방법 중 귀납 논증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귀납 논증’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귀납 논증’이라고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6점
‘귀납 논증’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4점
‘귀납 논증’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2점

## 02 지혜롭게 협상하기

**+** **확인문제** • 143~151쪽

01 ④   02 공사 추진 위원회가 준비한 대안   03 ②   04 ⑤  
 05 ①   06 ⑤   07 이해관계   08 ②   09 ④   10 ④  
 11 ②   12 ④   13 이억

- 01** 고속 철도 공사 반대 위원회가 협상을 준비한 내용을 고려하면 고속 철도 공사와 고속 철도 운행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02**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고속 철도 공사 추진 위원회는 철도 공사로 생기는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주민들이 고속 철도를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준비하였다.
- 03** 반대 위원회는 고속 철도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터널 내부로 토사와 지하수가 유입되어 땅 꺼짐 현상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 내용이 추측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반대 위원회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위원회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추측한 내용을 이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③ 추진 위원회는 학교 운동장의 지하를 지나는 터널 공사에 대해 반대 위원회가 걱정하는 점을 이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가 언급하는 고속 철도 운행의 진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물 균열, 땅 꺼짐 현상 등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⑤ 반대 위원회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환경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대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협상의 목표는 설득과 양보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타협안을 찾는 것에 있으므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양보할 수 있다.
- 05** 추진 위원회는 고속 철도 운행 시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으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5분 이내로 감소된다는 점 등을 언급했고, 반대 위원회는 공사 구간이 36종 범

정 보호 동물의 서식지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제시된 협상에서 전문가의 실제 연구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제시된 협상에서 제3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추진 위원회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발언에 대해 반대 위원회가 국립 공원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급한 부분은 논리적 허점이라기보다는 논점에 대한 발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제시된 협상에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양측 모두 언급하고 있지 않다.
- 06** 반대 위원회는 국립 공원의 지하를 통과하는 원래의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반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은 국립 공원의 지하를 통과하는 현재의 공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07** 협상의 절차 가운데 조정하기 단계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 내용의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하게 된다.
- 08** 추진 위원회는 고속 철도 공사의 노선을 수목산 국립 공원을 피해 동측 농경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대신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대 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추진 위원회는 상대측 요구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상대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추진 위원회는 여러 제안을 묶어 제시하지 않았고, 상대측에게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다.  
 ③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의 주장이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④ 추진 위원회가 발파 공법에 대해 언급할 때 전문가 집단인 □□ 학회가 검증했다고 하였지만, 이것을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09** 제시된 협상에서는 고속 철도 공사 구간, 공사로 인한 학생 및 지역 주민의 위험성, 발파 공사의 위험성과 관련한 공법 변경, 운행 속력 변경에 대하여 양측이 협상을 하고 있다.

**10**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의 요구 사항인 '시간 단위로 운행하는 고속 철도 정차역과 수목구 사이의 무료 셔틀 버스 제공'에 대해 3개월 동안의 이용객 수에 따라 운행 횟수를 조절하겠다고면서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1** [A]는 수목구 고속 철도 공사 계획 합의안으로, 추진 위원회와 반대 위원회가 한 협상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이다. 협상안은 협상의 결과 즉 양측이 합의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어느 한 측의 입장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12** 협상 과정 중 해결하기 단계에서는 협상을 통해 마련한 대안을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합의문을 작성한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조정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② 시작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13** 협상의 목적은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152~155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④ 07 ③ 08 해결책 09 ① 10 ④

**0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생길 때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따라서 협상 참여자들은 상대측과 대결하여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양측이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02** [A]를 통해 풋살 동아리와 농구 동아리는 같은 실내 체육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어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동물 실험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협상보다는 찬성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04** 협상은 한 번에 끝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협상을 준비할 때 한 번에 상대를 압도할 최선의 논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또 협상은 최선의 설득과 양보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타협안을 찾는 과정이므로 협상을 준비할 때는 추상적인 타협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05** 협상 합의안은 협상의 양측이 협상을 마친 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 협상 내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협상을 준비할 때 협상 합의안의 양식을 미리 파악할 필요는 없다.

**06** 서로의 대안을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는 활동은 '조정하기' 단계에서 해야 한다.

**07** 협상 참여자들마다 의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8** 협상 과정 중 해결하기 단계에서 양측은 타협과 조정을 거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합의한다.

**09** 협상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협력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협상의 전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상대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③ 협상은 사회적 소통이므로 협상 결과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④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이나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협상 후에도 갈등이 남아 있으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갈등이 남아 있다고 해서 협상한 결과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협상의 목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양보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타협안을 찾는 데 있다. 따라서 협상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했는가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01 ④ 02 ③ 03 ③ 04 예시 답안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은 국립 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다. 05 ① 06 ④ 07 ② 08 ① 09 ③ 10 ⑤

01 (가)에서 추진 위원회는 수목구 주민 등이 여러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공감한다면서 그 문제들은 검증 받은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위원회는 생태계 파괴나 학교와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피해에 관한 충분한 대안이 없다면 공사 계획을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대안이 충분할 경우 공사 계획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대해 양측이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가)에서 추진 위원회는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이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또한 반대 위원회도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많은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고속 철도 공사를 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있다는 점은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03 <보기>는 협상의 단계 중 '시작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양측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협상 참여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줄일 단서를 얻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해결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② 조정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④ 시작하기 단계와는 관련이 없다.

⑤ 조정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04 (가)에서 반대 위원회는 사람과 자연이 입을 피해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과 학교와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피해에 관한 충분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출제 의도 협상에 드러난 협상 참여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을 언급하고, 반대 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3점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을 언급했지만 반대 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5 추진 위원회는 두 번째 발언에서 고속 철도 공사를 하면 고속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이 확대되고(③),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15분으로 감소하며(④),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면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⑤)이라고 했다. 또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②)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목산 국립 공원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06 추진 위원회는 상대측인 반대 위원회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추진 위원회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고 있다.

② 추진 위원회는 '여러 가지 불안과 우려가 있으시겠지만'이라면서 반대 위원회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③ 추진 위원회는 땅 꺼짐 현상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위원회의 발언의 정확한 출처를 묻고 있다.

⑤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가 땅 꺼짐 현상에 대하여 발언하자, 지하수의 흐름과 지질 특성에 관한 검사 결과를 언급하여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07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면서 ㉠에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대 위원회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반응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은 상대측인 반대 위원회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08 반대 위원회가 공사 공법을 변경해 달라고 하자, 추진 위원회가 학교와 주거지 아래 일부 공사 구간만 공법을 변경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반대 위원회가 학교와 주거지 아래 지하 터널 구간에서 고속 철도 운행을 일 반 열차 평균 속력으로 낮춰서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추진 위원회는 고속 철도 최저 속력으로 운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반대 위원회와 추진 위원회 모두 상대를 배려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③ 양측은 자신의 입장에서 물러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고 있다.

④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가 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걱정 등을 이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서로 협상하고 있을 뿐, 제삼자의 중재를 요청한 예정인지는 알 수 없다.

09 반대 위원회는 터널 공사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의뢰하여 이에 대한 ○○ 학회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또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가 우려하는 공사 안전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 학회에서 검증한 자료, 고속 철도 속도와 관련된 각국의 사례, 지하 터널 구간에 문화재나 진동에 예민한 구조물이 없다는 사전 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사 중 발파할 때 생기는 진동의 영향 범위 밖에 존재하는 동식물 현황은 양측 모두가 조사할 필요가 없는 정보이다.

10 반대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 아래 지하 터널 구간에서 고속 철도 속도를 일반 열차 속도로 낮춰서 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진 위원회는 고속 철도의 최저 속력으로 낮추어 운행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 속도가 주변의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해 타국의 고속 철도 운영 사례인 ⊕‘자료’를 제시했다.

**대단원 평가**

• 164~167쪽

01 ③ 02 ④ 03 **예시 답안** 자료 3, 쓰기 맥락(주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04 ③ 05 ⑤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② 12 ⑤ 13 ②

01 글쓰기 과정은 크게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다)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작성하거나 수집한 것이다. 따라서 (다)를 먼저 수집하여 글쓰기에 필요한 것을 선별한 후, (나)처럼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02 <보기>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통해 개 물림 사고가 줄어든 성과를 거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한 신문 기사이다. (나)의 본문에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기사를 이 부분에 본론 3의 근거로 제시한다면 예상 반론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03 (나)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의 개요이다. 하지만 자료 3은 반려견 보호자의 자격이나 무지한 보호자들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쓰기 맥락에 맞지 않다. 따라서 자료 3은 삭제하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해야 한다.

**출제 의도**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다)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알맞게 언급하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다)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알맞게 언급하였으나, 그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4 (다)에서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접수된 건수와 반려동물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접수된 건수를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② 연역 논증이 아니라 귀납 논증을 사용하였다.  
④ 대상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지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려견과 관련된 사회 현상의 변화 과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5 (나)에서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로 인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 때문에 반려견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문제 상황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6 보통 고쳐쓰기는 글,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 (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근거와 함께 드러나고 있으며, (라)는 이 글의 결론 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와 (라) 사이에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다면 좀 더 탄탄한 논증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논증하는 글에서 과도한 문학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② 이 글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필요하지 않다.  
③ 이 글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과 관련한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⑤ 이 글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담은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라)는 이 글의 결론으로 의문 형식을 통해 끝을 맺고 있다. 그런데 반려견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사례를 추가하자는 의견은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07** 제시된 협상에서는 반대 위원회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08** 추진 위원회는 사람들이 고속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도로에 차량이 감소하여 미세먼지나 일산화 탄소 등의 대기 오염이 줄어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위원회는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니라 국립 공원의 생태계 보호 문제를 들어 현재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반대 위원회는 고속 철도 공사가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③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보는 측은 추진 위원회가 아니라 반대 위원회이다.

⑤ 추진 위원회는 공사 구간을 변경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있지는 않다.

**09** 반대 위원회가 현재 공사 계획에서 농경지가 있는 동측으로 구간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 계획한 공사 구간은 36종 법정 동물의 서식지이며 철새 도래지인 수목산 국립 공원을 지나기 때문이다. 반대 위원회는 국립 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 공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인 ㉠을 제시한 것이다.

**10** 반대 위원회는 수목산 국립 공원의 지하를 지나는 현재 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추진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최소 요구 사항만 유지한다면 일부 사항은 반대 위원회에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공사 구간, 즉 수목산 국립 공원의 지하를 지나는 구간은 다른 곳으로 변경되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유지한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11** (가)는 협상을 마무리하는 해결하기 단계로, 제시된 대안들을 확인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양측은 자신들이 포기한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협상의 시작하기 단계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④ (가)에서 양측은 합의된 사항들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협상 의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양보하기 어려운 사항이 드러나 있지 않다. 상대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고 있다.

**12** 제시된 합의안을 통해서 양측이 셔틀버스 운영 횟수에 대해 합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가)를 통해 셔틀버스 운행 횟수는 향후 이용객 수에 따라 조절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합의 사항 2에서 발파 방식이 아닌 진동이 없는 공법으로 바꾸어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공사 공법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수목구 고속 철도 공사 계획 합의안이다. 이 합의안은 공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협상 과정에서 도출한 것이다.

③ 합의 사항 1에서 공사 구간을 동측 농경지로 변경한다고 한 것과 합의 사항 2에서 학교와 지하 터널 공사의 구간은 유지한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공사 구간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합의안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 협상을 할 때는 준언어적·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 3 국어의 어제와 오늘

#### 01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 + 확인문제

• 175~179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② 06 ② 07 ③ 08 ⑤  
09 불·휘기·픈남·군

01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끊어적기를 한다는 의미이다. 「세종어제훈민정음」의 ‘말쌈·미’는 ‘말쌈+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이어적기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세종어제훈민정음」에 나오는 ‘나랏·말싸·미중동國·귀·에달·야’는 현대 한글맞춤법에 따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로 띄어 쓸 수 있다. 이 문장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띄어쓰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절이나 조사, 어미 등을 구분하여 띄어 쓰지 않고, 문장을 한 덩어리로 붙여 음을 알 수 있다.

② ‘사뭇다’에서 종성 ‘ㄷ’이 ‘ㅅ’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8종성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랏·말싸·미’ 등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음의 높낮이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쁘·들, 뷁·메’에 쓰인 ‘ㅃ, ㅍ’을 통해 초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배경지식 더하기

##### 8종성법

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ㅎ’의 8자로 표기함.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중성부용초성’으로 초성을 다시 종성에 사용함.

중성부용초성	훈민정음 창제 당시	초성에 쓰이는 음운을 다시 종성에 사용함.
8종성법	중세 국어	중성으로 8종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ㅎ’의 8가지 음운만 사용함.

02 「세종어제훈민정음」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백성들이 뜻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지 못함을 임금이 가엽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 글자, 즉 훈민정음을 창제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이 훈민정음 창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백성을 위해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②, ⑤ 백성이 문자를 몰라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글(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애민정신(愛民精神)’,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③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라는 문장에는 국어의 독자적인 언어·문자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한자로는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종이 우리말에 알맞은 고유 문자인 훈민정음을 새롭게 창제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03 중세 국어 ‘어·린百·씩姓·성·이니르·고·져·흫·배이·셔·도’는 현대어 풀이의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에 대응한다. 이 부분을 통해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글로 펼치기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04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의 바로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ㄷ, ㅌ’이 센 입천장소리, 즉 구개음 [ɟ, ɰ]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중세 국어의 ‘퍼·디’에 현대어 풀이의 ‘퍼지’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현대 국어에서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세종어제훈민정음」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ㅏ, ㅑ, ㅓ’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 ‘ㅚ’가 사용되었다.

② 한자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ㄴ, ㄹ’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두음법칙이라고 한다. 중세 국어의 ‘너·겨’에 현대어 풀이의 ‘여겨’가 대응하는 것 등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중세 국어의 ‘배’는 현대어 풀이의 ‘바가’에, ‘내’는 ‘내가’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주격 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의 ‘中동國·귀·에’는 현대어 풀이의 ‘중국과’에 대응한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과’ 대신 ‘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어·린’은 의미 이동의 예이고, ‘노·미’는 의미 축소의 예이다. 참고로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면서 의미가 확대된 예로는 당산관 이상 정1품 이하의 호칭이었다가 남자 노인을 일컫는 말이 된 ‘영감’을 들 수 있다.

06 <보기>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어는 ‘·스·물’이다.

**오답 풀이** ① ‘퍼디(>퍼지)’는 중세 국어에서는 ‘ㅣ’ 모음에 선행하는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③, ④ ‘말쓰미(>말씀이), ·노·미(>놈이)’는 중세 국어에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연철)로 표기했음을 보여 준다.

⑤ ‘너·겨(>여겨), ‘니르·고·져(>이르고자)’는 중세 국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이 ‘ㅣ’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07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확인하고 조선 왕조의 창업이 하늘의 뜻에 의한 역사적인 소리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종 대왕이 정인지, 권제, 안지 등에게 명하여 짓게 한 것이다.

08 『용비어천가』에서 선어말 어미 ‘-시-’는 ‘六龍(육룡)·이누르·샤’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현대어 풀이의 ‘여섯 용이 나 시어’에 대응되므로 ‘-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9 『용비어천가』의 ‘불·휘기·픈남·근’은 현대어 풀이의 ‘뿌리가 깊은 나무’에 대응한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뿌리, 즉 기초가 튼튼하여 바람과 같은 어떤 시련도 굳건히 이겨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활동 **응용** 문제

• 180~182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1 이 글의 2문단에서 남한에서는 ‘아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안해’라고 한다는 것을 통해 ‘ㅎ 종성 체언’의 ‘ㅎ’의 흔적이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ㅎ 종성 체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동물 이름의 앞에 붙는 ‘수-’, ‘암-’과 관련된 끝소리 ‘ㅎ’의 흔적도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ㅎ 종성 체언’이 다르게 실현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안팎’과 ‘안해’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의 ‘ㅎ 종성 체언’의 ‘ㅎ’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소학언해』의 ‘술훈’의 ‘살’이 과거에 ‘ㅎ’ 받침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소학언해』에서 ‘ㅎ 종성 체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1문단에서 ‘ㅎ 종성 체언’의 끝소리 ‘ㅎ’은 뒤에 오는 소리의 성질에 따라 드러나거나 생략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ㅎ 종성 체언’은 단어 단독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의 결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중세 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국어의 모습을 공부한다는 의미이다. 중세 국어를 학습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어가 지닌 한계도 확인할 수 없다.

03 ‘신어’는 경우에 따라 유행어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번 만들어진 모든 신어가 사전에 등재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의 ㉠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유입된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 신어의 예를, ㉡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신어의 예이다. 따라서 <보기>를 통해 국어의 신어는 사회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5 바람직한 국어생활을 하려면 먼저 지나친 외래어나 외국어, 과도한 줄임말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맞춤법을 준수하고 띄어쓰기를 지키는 등 올바른 문장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배경지식 더하기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한글로 표기하며, 국어 어휘로 자리잡은 단어를 말한다. 예 버스, 라디오 등
외국어	한국어가 아닌 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말하며,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쓰는 말이다. 예 헬로(hello), 테이크 아웃(takeout) 등

06 제시된 표는 외국어, 외래어 표현을 우리말로 다듬은 것을 정리한 것이다. ‘ 많관부’는 외국어나 외래어가 아니라 ‘많은 관심 부탁’에서 우리말의 앞글자만 따온 것이므로 제시된 표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5 예시 답안 참고 06 ⑤  
 07 예시 답안 참고 08 ② 09 ② 10 ④ 11 ① 12 ⑤  
 13 예시 답안 참고 14 ②

01 이 글에서는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글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아 이것을 가없게 여겼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③ '세종어제(世宗御製)'라는 말은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글을 의미한다. 여기서 '어제(御製)'는 임금의 직접 지은 글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세종어제'는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글임을 알 수 있다.

④ '나·랏·말·쌈·미·중·동·국·국·에·달·아·문·자·중·와·로·서·르·스·문·디·아·니·홀·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인 한자가 우리말과 달라 소통이 어려운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⑤ '사·름·마·다·히·여·수·비·나·겨·날·로·부·메·변·안·안·크·후·고·저·홍·쑤·루·미·나·라'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삶이 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02 한자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ㄴ, ㄹ'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두음법칙이라고 한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었다면 중세 국어의 '니르·고·져'는 '이르고저', '너·겨'는 '여겨'가 되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 썼다.

③ '나·랏·말' 등에서 끝지 왼쪽에 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④ 'ㅇ, ㅁ, ㅂ, ㅅ'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음운을 사용하였다.

⑤ '말쌈+이(주격 조사)'를 현대 국어에서는 '말쌈'으로 쓰고, 중세 국어에서는 '말쌈·미'로 썼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文문字·중'에서 '字·중'은 받침 자리에 형식 중성 'ㅇ'을 갖추어 '중' 표기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란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서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 앞말이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는 'ㅣ', 앞말이 'ㅣ' 모음이나 반모음 'ㅣ'로 끝날 때 '∅(영형태)'를

활용했다. '말쌈·미'에서는 '말쌈'이 자음 '미'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 조사로 '이'를 사용한 것이다.

② 중세 국어 '中·동·國·국·에'는 현대어 풀이의 '중국과'에 대응한다. 문맥상 우리의 말과 중국의 문자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므로 현대 국어에서는 '와/과'가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에'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어두 자음군은 'ㅃ'처럼 초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소리는 것을 말한다. 'ㅃ'들의 'ㅃ'에서 어두 자음군이 쓰인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어두 자음군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적격 조사에서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모음 조화란 'ㅏ', 'ㅑ'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체언의 모음이 무엇이든 '을/를'을 사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을/을', '를/를'을 사용하였다.

04 '스·못·다'가 '스·못·디'로 쓰이면서 중성 '츠'이 '스'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중성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한다는 8중성법에 따른 표기이다.

05 **예시 답안** 어휘의 의미가 달라진 것은 '어·린', '·노·미' '·어·엿·비'가 있다. '어·린'과 '·어·엿·비'는 의미가 변화한 예로,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는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의 뜻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다'는 의미로 변화했다. '·노·미'는 중세 국어에서 '보통 사람'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출제 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휘 변화를 보이는 단어의 예시와 설명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휘 변화를 보이는 단어 3개를 모두 찾아 그 예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휘 변화를 보이는 단어 2개를 모두 찾아 그 예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휘 변화를 보이는 단어만 찾아 제시했으나 설명이 미흡한 경우	2점

06 『용비어천가』에서는 육조의 위대함을 중국 제왕들의 사적과 일치시켜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표현하고 있으나, 중국과 다른 조선만의 특징을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7 **예시 답안** ㉠ ‘불·휘’는 ‘불휘’가 모음 ‘ㅣ’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로 ‘∅’가 쓰였고, ㉡ ‘:시·미’는 ‘십’이 자음 ‘ㅁ’으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로 ‘이’가 사용되었다.

**출제 의도**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의 쓰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와 ㉡에 쓰인 주격 조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와 ㉡에 쓰인 주격 조사의 형태가 차이 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 살펴보고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배점
㉠와 ㉡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각각에 사용된 주격 조사에 대해 알맞게 서술한 경우	4점
㉠와 ㉡의 차이점을 언급하였지만 각각에 사용된 주격 조사에 대해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와 ㉡의 차이점을 언급하지는 못하였으나 각각에 사용된 주격 조사에 대해 알맞게 서술한 경우	2점

08 중세 국어 ‘·하느·니’는 현대어 풀이 ‘많으니’에 대응한다.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많다’는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하느·니’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의 ‘남근’은 현대어 풀이의 ‘나무’에 대응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 ‘-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나모’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남’으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나무’로만 사용한다.

③ 모음 조화란 ‘ㅏ’, ‘ㅑ’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부르매’, ‘구무래’에서 조사 ‘애’가 아니라 ‘애’가 쓰인 것도 모음 조화에 따른 표기이다.

④ 중세 국어의 ‘뭇새’는 현대어 풀이의 ‘움직이므로’에 대응한다. 이는 ‘뭇+ㄹ새’로 분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ㄹ새’는 이유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⑤ ‘깊-+-은’은 중세 국어에서는 ‘기·핀’으로, 현대 국어로는 ‘깊은’으로 쓴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9 중세 국어 ㉠ ‘느·랴·샤’는 현대어 풀이 ‘나시어’에, ㉡ ‘·이시·니’는 현대 국어 ‘이시니’에 대응한다. 문맥을 고려하면 ㉠에서는 ‘-샤’가, ㉡에서는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세 국어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시-’를,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샤-’로 다르게 실현되었다.

10 중세 국어의 ‘내히’는 ‘내ㅎ+이’로 분석된다.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다는 것은 앞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났다는 것이므로 ‘ㅎ’은 ‘내’가 이미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종성, 즉 끝소리가 ‘ㅎ’인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끝소리 ‘ㅎ’은 뒤에 오는 소리의 성질에 따라 겹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문장에서 쓰일 때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

11 (가)에서는 중세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를 통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2문단에서 ‘ㅎ’의 흔적이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예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언어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끝소리 ‘ㅎ’은 뒤에 오는 소리의 성질에 따라 겹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몇몇 단어에만 그 흔적이 화석처럼 남아 있다고 했으므로, 종성에 오는 ‘ㅎ’의 경우 항상 음운의 성질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에서 사물의 이름에 ‘ㅎ 종성 체언’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가)의 3문단과 4문단에서 동물의 성별을 구분할 때 동물 이름 앞에 붙는 말인 ‘수’와 ‘암’도 옛날에는 ㅎ 종성 체언이라고 했을 뿐, 동물의 성별을 구별하기 위해 ‘ㅎ 종성 체언’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12 <보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신어들이다. (나)에서 신어(新語)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다고 했다.

13 (가)에서는 ‘ㅎ 종성 체언’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현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는 시대의 흐름,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과거에는 ‘ㅎ 중성 체언’이 많았지만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계속해서 신어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제 의도**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를 바탕으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가)와 (나)를 바탕으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점

- 14** ㉠은 새로 유입되는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하는 신조어를 말한다. 따라서 기차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한 어휘들이 생겼다는 사례가 가장 적절하다. ‘기차’라는 대상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했을 때 이를 부른 명칭인 화륜차나 화차라도 이러한 신어의 예이다.
- 오답 풀이** ① ‘언박싱(unboxing)’은 외국어 표현이다. 이는 ‘개봉(기)’ 정도로 다듬을 수 있다.
- ③ ‘많은부’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다.
- ④ ‘대박’은 유행어의 예로 적절하다.
- ⑤ ‘ㅇㄷ’는 ‘어디’에서 초성만 따온 것으로,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주로 편하게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 02 한글 맞춤법과 오늘날의 국어생활



### 확인문제

• 193~199쪽

01 ㉠ 02 ㉡ 03 실패울 04 ㉣ 05 ㉠ 06 ㉢

- 01** <보기>의 문장은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예이다.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도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
- 02**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어 파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해쓱하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이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며 이는 된소리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 03** ‘실패울’은 ‘룰’ 앞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 11항에 의하여 ‘울’로 적는다.
- 04** ‘깟잎’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깟닙]으로 소리 난다.
- 오답 풀이** ① 뱃길은 [배길/ 깰]로 발음된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배+길)로서 ‘배(순우리말)’의 ‘ㅂ’과 ‘길(한자어)’의 ‘ㄱ’이 결합하면서 뒷말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 ② ‘긱병’은 [귀병/권병]으로 발음된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귀+병(病))로서 뒷말의 첫소리 ‘ㅂ’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 ③ ‘빗물’은 [빈물]로 발음된다. 이는 순우리말 ‘비’와 ‘물’이 결합한 합성어(비+물)로, 뒷말의 첫소리가 ‘ㅁ’이고, 그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 ⑤ ‘예삿일’은 [예산닐]로 발음된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예사+일)로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 05** ‘부터’는 (체언이나 부사어 또는 일부 어미 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입니다’에서 ‘부터’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② ‘보다’는 (체언 뒤에 붙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④ ‘만큼’은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한글 맞춤법 42항에 따라 띄어 쓴다.

⑤ ‘마리’는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명사로 한글 맞춤법 43항에 따라 띄어 쓴다.

**06** ‘그래’는 (‘-구먼, -군’과 같은 해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오늘은 하늘이 맑군그래’에서 ‘그래’는 조사이므로 한글 맞춤법 41항에 따라 ‘맑군그래’로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①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조사로 한글맞춤법 41항에 따라 붙여 쓴다.

② ‘살’은 나이를 세는 의존 명사로 한글맞춤법 42항에 따라 띄어 쓴다.

④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한글맞춤법 42항에 따라 띄어 쓴다.

⑤ ‘그루’는 나무를 세는 단위의 의존 명사로 한글 맞춤법 43항에 따라 띄어 쓴다.

③ ‘못하다’처럼 붙여 쓰면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⑤ ‘집안’처럼 붙여 쓰면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03** 의존 명사는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룬다. 따라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오답 풀이** ① 조사는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이 지니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③ 한글맞춤법 총칙 제2항에 의하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④, ⑤ 올바른 띄어쓰기를 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우며, 글쓴이의 의도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04** ‘잇몸’은 [인똥]으로 발음된다. 이는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05** ‘제삿날’은 [제산날]로 발음된다. 이는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06** ‘고래의 지방 조직이나 뼈에서 얻는 기름’을 의미하는 ‘고래기름’은 ‘고래’와 ‘기름’의 합성어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고래기름’으로 쓴다.

**07** 한글 맞춤법 제51항을 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따라서 ‘툼툼히’는 ‘툼툼이’라고 써야 한다.

**08** ‘뼈죽이’는 ‘뼈죽거리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다. 따라서 ‘뼈죽’이라는 어근에 접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으므로 그 원형을 밝히어 ‘뼈죽이’라고 적어야 한다.

**09** ‘밥, 떡,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린다.’라는 뜻이므로 ‘안쳤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활동 **응용** 문제

200~203쪽

- 01 ④ 02 ④ 03 ② 04 ① 05 ④ 06 ⑤ 07 ②  
08 ② 09 안쳤다 10 ③ 11 ① 12 ⑤

**01** ‘신기다’는 ‘신다’의 사동사이다. 용언의 어간 받침 ‘ㄴ,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데(표준어 규정 제6장 제24항),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기다’의 올바른 발음은 [신기다]이다.

**02** 같은 형태이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 크기가 큰 집은 ‘큰 집’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붙여 쓴 ‘큰집’은 ‘집안의 만이가 사는 집’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큰사람’처럼 붙여 쓴 경우에는 ‘똥똥이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또는 큰일을 해내거나 위대한 사람’을 의미한다.

② ‘쥐 꼬리’는 ‘쥐의 꼬리’를 의미한다. 붙여 쓴 ‘쥐꼬리’는 ‘매우 적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0 ‘공중으로 날면서 가다.’의 의미를 지닌 말은 ‘날아가다’이다.

○ 오답 풀이 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 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은 ‘체하다’이다.

②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가 맞는 표현이다.

④ ‘띄다’는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라는 의미는 ‘띠다’이다.

⑤ ‘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므로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때는 ‘로써’로 써야 한다.

11 겹받침 ‘ㄱ’, ‘ㄴ’, ‘ㄹ’,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뱃-’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뱃다’는 [뱃따]로 발음해야 한다.

12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으므로, ‘맛있던지’가 알맞은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① 생선을 조린다는 뜻이 있는 ‘조림’으로 적는다.

② 약을 달인다는 뜻이 있는 ‘달여’로 적는다.

③ ‘렬, 룰’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 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 룰’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성장률’로 적는다.

④ ‘제자리에 맞게 붙이다, 주문하다, 똑바르게 하다, 비교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말은 ‘마추다’가 아닌 ‘맞추다’로 적는다.

배경지식 더하기

헛갈리기 쉬운 어휘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달히다	문이 저절로 달혔다.
닫히다	문을 힘껏 닫혔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소단원 평가

• 206~208쪽

01 ② 02 ④ 03 ① 04 저V하늘V위에V나무V한V그루  
05 ③ 06 ④ 07 ⑤ 08 ㉠: 첫조각, ㉡: 겹날, ㉢: 두렛일  
09 예시 답안 참고 10 ② 11 ③

01 이 글은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인 제1항과 제2항을 제시한 후 ‘구름이 꼭 솜사탕 같다.’를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하여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의 역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④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⑤ 띄어쓰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02 한글 맞춤법 제56항을 보면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고,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배던지 사과던지’가 아니라 ‘배든지 사과든지’로 써야 맞다.

03 ‘땀받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다. 따라서 부사가 되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04 띄어쓰기는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단위를 나타내는 ‘그루’와 같은 명사는 띄어 쓴다. 따라서 ‘저V하늘V위에V나무V한V그루’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05 <보기>에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된소리되기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된소리되기를 표기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된소리되기는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한다.

② 된소리되기가 모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06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따라서 ‘분렬’이 아니라 ‘분열’이 맞는 표현이다.

07 한글 맞춤법 제5항을 보면 ‘한 단어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다. ‘눈곱’은 [눈꺄]으로 발음하지만 어근 ‘눈’과 어근 ‘곱’이 결합한 복합어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08** ‘쇠’와 ‘조각’이 결합한 ‘쇳조각’은 [쇳조각]으로 발음된다. 이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과 관련 있다.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을 의미하는 한자어 ‘계’와 순우리말 ‘날’이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의 첫소리인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겐날]로 발음되므로 ㉡과 관련 있다.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을 의미하는 ‘두레’와 ‘일’이 합성어를 이룰 때 ‘ㄴㄴ’ 소리가 덧나 [두렌닐]로 발음되므로 ㉢과 관련 있다.

**09** 예시 답안 ‘안 돼’는 부정어 ‘안’과 동사 ‘되다’로 이루어진 표현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안돼’는 한 단어로 상황이 나쁘거나 잘 풀리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로 볼 때 같은 형태의 말이라도 붙여 쓰고 띄어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출제 의도** 띄어쓰기에 따라 같은 형태의 어휘라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안’의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안 돼와 ‘안돼’의 의미 차이를 쓰고, 띄어쓰기에 따라 같은 형태의 어휘라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안 돼와 ‘안돼’의 의미 차이만 썼거나 띄어쓰기에 따라 같은 형태의 어휘라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만 적절히 서술한 경우	2점

**10** ㉠의 ‘밖에’는 조사이지만, ㉡의 ‘밖에’는 명사 ‘밖’에 조사 ‘에’를 붙여 쓴 것이다.

**11**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는 의미의 단어는 ‘담그다’이다. 따라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였다면 ‘담갔다’로 표기해야 한다. 이때 ‘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간]으로 발음되고, ‘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따]로 발음된다. 따라서 표준 발음은 [담간따]이다.

**대단원 평가**

• 213~217쪽

- 01 ㉢ 02 ㉣ 03 ㉤ 04 두음 법칙 05 ㉡ 06 ㉢: ㉣, ㉤: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예시 답안 참고

**01** (가)를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고 글을 맺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가)를 보고 왕권이 약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사대부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있지만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중국과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는 것이 어려워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02** 8종성법이라면 (나)의 ‘꽃’은 ‘곳’으로 표기해야 하므로 (나)는 8종성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가)는 ‘스뫼·디’의 표기로 보아 8종성법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스뫼·디’의 기본형은 ‘스뫼·다’로 8종성법에 따라 ‘ㅈ’ 대신 ‘ㅅ’으로 받침을 표기한 것이다.

**오답 풀이** ㉠ (가)의 ‘배와 (나)의 ‘불·휘’는 현대 국어 자료에서 각각 ‘바가, ‘뿌리가’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주격 조사 ‘가’는 쓰이지 않고 ‘아나 ‘ㅣ’ 또는 영(∅)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가)의 ‘노·미(놈이)’나 (나)의 ‘부루·매(바람에)’를 통해 소리나는 대로 이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03** 「제1장」에서는 태조와 그의 조상들을 ‘용’으로, 「제2장」에서는 ‘뿌리가 깊은 나무’나 ‘샘이 깊은 물’ 등 상징적인 시어들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제1장」에는 반어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 「제1장」에는 역사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 「제2장」은 조선이 위협 없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날 뿐 독자들이 본받을 점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 「제2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4**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ㅣ’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05 ㉠에 따르면 ‘ㅅ’ 계열 합용 병서는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ㅅㄹ·미·나라’의 ‘ㅅ’은 된소리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 06 ㉡는 연서 표기 방식을 서술한 것으로, ‘ㅇ’을 자음 아래에 이어서 쓴 사례를 찾으면 ㉢가 적절하다. ㉠은 병서 표기 방식을 서술한 것으로 초성에 두 자음을 나란히 쓴 ㉣가 적절하다.
- 07 ‘ㅎ 중성 체언’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쓰였고, 현대에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ㅎ 중성 체언’의 역사적 표기의 흔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 08 ‘마음의 상처’를 ‘마상’으로 줄여서 쓰는 것이 신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현상인지 이 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 09 (가)와 (나)에서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인한 발음의 변화를 모두 표기에 반영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0 ㉠ ‘달리다’는 [달리다]로 발음되고 표기도 ‘달리다’로 한다.  
**오답 풀이** ① ‘학교’는 [학교]로 된소리 발음이 나지만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적는다.  
 ③ ‘밥상’은 [밥쌍]으로 예사소리 ‘ㅅ’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ㅃ’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11 한글 맞춤법 제5항의 예외 규정을 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짜기’가 아니라 ‘갑자기’로 적어야 한다.
- 12 사이시옷은 합성어를 만들 때 표기하는 일이 많지만 순우리말로만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적는다. 합성어를 이룬다고 해서 사이시옷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3 ‘국제 연합’의 약어는 [불임 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불임 3]의 규정을 보면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은 ‘국련’으로 적어야 한다.

- 14 ‘햇수’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의 규정을 따른다.

- 15 **예시 답안** 최치원V선생, <보기 1>의 제48항에서 성과 이름은 붙여 쓰지만 호칭어 등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성인 ‘최’와 이름인 ‘치원’은 붙여 쓰지만, 호칭어인 ‘선생’은 띄어 써야 한다.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띄어쓰기와 근거가 되는 조항 모두를 만족해야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 2>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고, <보기 1>에서 근거가 되는 조항을 찾아 그렇게 고쳐 쓴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보기 2>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썼으나, <보기 1>에서 근거가 되는 조항을 찾아 그렇게 고쳐 쓴 이유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보기 2>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지는 못했으나, <보기 1>에서 근거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 4 세상을 보는 눈

### 01 기후 위기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 확인 문제

• 225~231 쪽

01 ㉓ 02 국내에는 전문 취재 팀이 부족하고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03 ㉔ 04 ㉕ 05 ㉖ 06 ㉗ 07 ㉘ 08 언론 매체가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행위, 즉 그린 워시를 감시하기보다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09 ㉙ 10 ㉚ 11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흐드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12 ㉛

01 (나)의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 현황’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에 따르면 기후와 관련된 국제 행사가 있었던 시기(1992, 1997, 2002, 2021년)에는 기후와 관련된 보도가 늘어났지만, 국제 행사가 없었던 시기(1996년)에는 기후와 관련된 보도가 감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사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다)의 ㉑ ‘국내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다.’에서는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만 인식한다는 점과 기후 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의 국내 언론사는 전문 취재 팀 부족과 검증 시스템 미흡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03 이 글에 사용된 막대그래프 자료는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연도별로 국내 언론이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보도한 기사 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막대그래프는 보도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기사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파악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막대그래프의 하단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이라고 자료의 출처와 연도를 밝히고 있다.

③ 1992년의 기사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위쪽에 ‘리우 회의가 열림’, 1997년의 기사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위쪽에 ‘교토 의정서가 채택됨.’ 등을 표기함으로써 주요 국제 행사 때 국내 언론 매체가 보도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제시된 막대그래프에서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도 현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막대그래프만 보면 생략된 기간 동안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의 횟수를 파악할 수 없다.

⑤ 제시된 막대그래프를 통해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가 특정 시기, 즉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기사의 첫 번째 문단에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5~20년, 풍력 날개의 수명은 20~30년이라고 했으므로 풍력 날개가 태양광 패널에 비해 수명이 길다. 하지만 신문 기사에서 각각의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풍력 날개가 태양광 패널보다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서 ‘태양광 패널의 20~2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이라고 했으므로 패널의 일부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기사의 1문단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태양광·풍력 폐기물이 골칫거리라면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날개의 수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③ 기사의 2문단에서 ‘국내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발생량은 2018년 17만 6천 톤에서 2020년 한 해 279만 4천 톤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라고 하였다.

⑤ 기사의 1문단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를 걷어 내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05 (바)에서 글쓴이는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와 신문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06 ㉗ ‘골칫거리’는 성가시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이르는 말로, 표현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신문 기사를 쓴 기자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의 폐기물을 골칫거리라고 표현하여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 주고자 한다.

**오답 풀이** ①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설비의 폐기물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②, ③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는 일부를 제외하고 매립하는데,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다며 우려하고 있다.

④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률이 낮고, 상당 부분이 매립되고 있어 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 건설 자재의 비용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07** 글쓴이는 (사)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내 언론 매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아)에서 정치 분야, (자)에서 경제 분야, (차)에서 사회 분야로 나누어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언론이 해야 할 일을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아)~(차)에서 설명하고 있다.

② '기후' 관련 신문 지면 보도 건수를 조사한 내용을 시각 자료인 표로 제시하여, 기후 보도에서 국내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아)에서 정치 분야의 보도 태도에 대해 미국 언론과 국내 언론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언론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⑤ (아)~(차)에서는 각각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현실에서는 국내 언론 매체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08** (자)에 제시된 글쓴이의 견해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언론 매체는 경제 분야에서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언론 매체는 기업이 실제로 친환경적인 실천을 하면서 제품을 만든 것인지 검증하지 않고 ㉠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글쓴이는 언론 매체의 이러한 행위가 기업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거짓으로 조성하는 것을 돕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09** 글쓴이는 (차)에서 언론 매체는 사회 분야에서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도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인간이 느끼는 공포감만 보도했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10** (타)에서 글쓴이는 장기적이고 심층적으로 기후 위기를

보도해야 하지만 그것은 소수 기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11** (카)에서 글쓴이는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고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흐드는 엄청난 위협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의 원인과 실태, 대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기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나 대안이 없다면 구성원들은 무기력에 빠지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개인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과 같이 해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 232~237 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인용한 자료와 전명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06** ① **07** ④ **08** ③ **09** ⑤ **10** ① **11** ① **12** ② **13** ②

**01** 이 글의 글쓴이는 기후 위기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언론 매체가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보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만약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면, 글쓴이는 언론 매체의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기후 위기로 재난이 발생할 때 국내 언론 매체가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참여를 이끌어 내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03** 제시된 막대그래프의 막대 상단에 11건, 65건처럼 보도 건수가 표기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막대그래프 하단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

② 각 연도별 기후 위기 관련 국내 언론 매체의 보도 건수를 막대의 높이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③ 2002년부터 2021년 사이의 수치가 생략되어 있어, 그 사이에도 국내 언론 매체에서 국제 행사 때에만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

⑤ 이 글의 글쓴이는 국내 언론이 국제 행사 때에만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 제시된 막대그래프 자료는 국제 행사가 있을 때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가 늘어남을 보여 주므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이 글에 제시된 표 자료는 '기후'와 관련된 기사가 일주일 동안 신문 지면에 얼마나 보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도 주제를 5가지로 나누어 이에 따른 보도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 자료는 한 주제에 대한 보도 건수의 변화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

**05**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관의 첫 번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 패널 폐기물 발생량이 279만 4천 톤으로 2018년에 비해 15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국 □□ 연구원의 두 번째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폐기물의 양이 2만 935톤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2020년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2030년 이후 패널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였다. 즉, 글쓴이는 기사에서 인용한 두 자료와 기사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06** 글쓴이는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와 기사에서 전망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미흡한 검증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07**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어떤 사건을 매체에 수록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부터 편집자의 가치 판단이 작용된다. 그래서 매체에는 가치 판단에 따라 현실의 일부만이 편집되어 수록된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매체 자료가 편집된 것임을 인지하고 거기에 어떠한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지, 그 가치 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따지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8** [B]는 '섬표'라는 음료에 멸종 위기 동물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 제품이 지구 생태계 문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광고이다. 이 광고는 소비자가 이 음료를 구매하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고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이 광고의 제작자는 이 광고를 통해 '섬표'라는 제품이 멸종 위기 동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제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09** [B]에서는 '섬표'라는 음료를 구매하는 것이 지구를 어떻게 지키는지, 멸종 위기 동물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B]에서는 '섬표' 음료의 용기 재활용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다.

② 상단의 '지구를 지켜요.'와 하단의 '멸종 위기 동물을 기억해주세요.'의 내용은 모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B]에 제시된 동물들이 실제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④ 음료 자체의 이미지가 어둡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10** 오늘 본 영화의 즐거리를 확인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인 내용 확인에 해당한다.

**11** 만약 매체에서 통계 자료를 인용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면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출처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 조사 시기, 조사 대상 등이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야 신뢰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뉴스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중 특정 사건을 선택하여 보도하는 것이므로 뉴스 제작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을 선택하여 보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③ 신문 기사는 크게 표제, 부제, 본문으로 구성된다. 각각에 드러난 기사의 관점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④ 영상 매체 자료를 볼 때는 화면의 이미지 구성, 배경 음악, 음성, 자막 등을 통해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지면 광고를 볼 때는 광고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문구 등을 검토하여 제작자가 광고를 만든 의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12**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 그 내용이 감동적인지 아닌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13 매체 비평 자료에서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는 사용한 문자, 표,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 자료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매체 자료의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매체 자료에 사용된 글씨체는 매체 자료의 의도나 목적, 매체 자료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소단원 평가**

• 240~244쪽

01 ③ 02 예시 답안 참고 03 ② 04 ② 05 예시 답안 참고  
03 ① 06 ⑤ 07 ⑤ 08 ① 09 ⑤ 10 ④ 11 예시 답안 참고  
12 ② 13 ⑤ 14 ⑤

01 이 글의 글쓴이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거나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국내 언론의 보도 현황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3년에 실시한 조사의 통계 내용을 막대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 현황’을 막대그래프로 제시하면서 출처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도는 ‘2023년’이라고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다)에서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으로 기후 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고, (라)에서 국내 언론사들은 국내에는 전문 취재 팀이 부족하고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⑤ (가)에서는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 ‘기후 비상’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2 **예시 답안**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라는 중립적인 말은 ‘기후 위기’와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사용하는 용어에 드러난 제작자의 관점 및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라는 말의 차이를 밝히고, 영국 언론이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의 용어 차이나 영국 언론의 기후에 대한 인식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3 이 글에 제시된 그래프는 (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내 언론에서 ‘기후 변화’ 단어와 관련 있는 기사를 검색한 결과를 나타낸 막대그래프이다. 그래프에 제시된 리우 회의, 교토 의정서 등은 국제 사회가 기후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분쟁이 아니다.

04 글쓴이는 (나)의 조사 자료를 통해 국내 언론 매체들이 특정 시기에만 기후와 관련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다)에서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을 통해 국제 사회의 기후 문제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없다.

③, ⑤ (나)를 고려하면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는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 증가하는 것일 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05 **예시 답안** 기후 위기와 관련한 보도는 장기간에 걸쳐 기후 위기의 발생 원인과 기후 위기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다루는 심층 기획 기사로 보도해야 하며, 과학,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검토하여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출제 의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심층 보도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일회성으로 보도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등으로 적는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 검증으로만 서술한 경우 피상적 서술로 분류해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배점
심층 보도를 해야 기후 위기의 발생 원인과 피해를 다룰 수 있다는 내용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점
심층 보도를 해야 기후 위기의 발생 원인과 피해를 다룰 수 있다는 내용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점

**06** 이 글에서는 매체 자료인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글쓴이는 신문 기사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폐기물이 크게 늘어난다고 전망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전문 조사 기관의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체 자료에 드러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07** [A]에서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은 ○○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279만 4천 톤인데, 한국 □□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2만 935톤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인용한 자료대로라면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양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줄어드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의 2문단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의 발생량에 대해 ○○ 기관과 한국 □□ 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② [A]의 3문단에서 현재 태양광 패널 폐기물은 20~25% 정도의 알루미늄 등과 같은 일부 소재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된다고 설명하였다.

③, ④ [A]의 3문단에서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75~80%는 매립되는데, 매립된 폐기물이 메탄가스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만은 않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08** 글쓴이는 국내 언론 매체는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자료가 기사화되기도 한하면서 [A]를 제시했다. [A]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설비 폐기물이 증가한다면서 ○○ 기관과 한국 □□ 연구원의 자료를 제시했다. 국내 태양광 패널 폐기물 발생량이 ○○ 기관은 2020년에는 279만 4천 톤이라고 했고, 한국 □□ 연구원은 2030년에는 2만 935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두 자료를 통해 태양광 패널 폐기물 발생량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A]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글쓴이가 [A]를 제시한 이유는 국내 언론 매체의 사실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여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09** <보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신문 기사는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사실을 취사선택하여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편집을 통해 걸러진 내용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다. [A]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장단점 가운데 단점을 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편집을 통해 왜 이 내용만을 보도했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의 3문단에서 태양광 패널의 20~2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 일부 소재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쉽지 않아 매립한다고 했다.

② [A]의 1문단에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5~20년, 풍력 날개의 수명은 20~30년이라고 했다.

③ [A]의 3문단에서 매립된 폐기물은 메탄가스를 배출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④ [A]의 2문단에서 ○○ 기관이 조사한 2018년 국내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발생량이 한국 □□ 연구원의 2030년에 발생할 폐기물 폐기물의 양을 전망한 자료를 제시했다.

**10** (바)에서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 보도의 전문성을 위해 이와 관련한 전담 팀을 구성하고, 전문적 소양을 갖춘 기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기자가 기후 위기 보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11** **예시 답안** 언론 매체가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에 관한 철학과 정책을 질문하여 각 후보의 기후 위기 공약을 점검하지 않으면 각 후보자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글쓴이의 관점에서 언론 매체의 정치 분야에서 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언론 매체가 정치권을 감시·비판하여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점
언론 매체의 역할에 대한 언급 없이 '기후 위기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같이 추상적으로 서술한 경우	1점

**12** ㉠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인 9월 24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기후'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문 기사를 조사한 자료'는 기후와 관련된 신문의 보도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3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사회 분야에서 해야 하는 언론 매체의 역할이다. 이는 글쓴이가 국내 언론 매체에 바라는 일이지, 문제점은 아니다.

14 이 글의 글쓴이는 (바), (사), (아)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언론 매체의 역할로 기후 위기에 대한 보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것, 기후 위기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고 비판할 것, 기후 위기 속에서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의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을 전달하여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을 뿐, 원인과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만을 조성하는 것은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 속에서 대안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견해와 거리가 멀다.

## 02 주제 통합적 읽기



### 확인문제

• 251~261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친구(벗)들이 자신의 책을 팔아 '나(이덕무)'의 서재를 짓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06 ② 07 ⑤ 08 예시 답안 상대가 구걸하는 생활을 그만둘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안쓰러운 마음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09 ② 10 ③ 11 ④ 12 ⑤ 13 ③ 14 ③ 15 ② 16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01 읽기 전 읽기 목적 확인에서 '친구'란 무엇인지를 주제로 발표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친구에 관한 세 개의 글을 찾았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글을 읽을 때는 친구와 관련이 있는 바람직한 우정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02 이 글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은 주인공인 '나(이덕무)'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차라리 집 밖 빈터가 더 넓지 않은가.' 등에서 '나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봄으로, '질은 녹색빛', '연녹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백동수가 '나(이덕무)'를 '매부(여자 형제의 남편)'라고 부르는 부분과 '서글서글한 목소리'라는 표현을 통해 백동수가 '나'와는 가족이며 '나'와 친하게 지냈을 알 수 있다. 또 '유득공이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를 통해 유득공이 친구인 '나'를 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가)의 '백담 아랫동네로 이사한 지 세 해쯤 되던 해였다.'를 통해 이덕무는 이미 백담 아랫동네로 이사를 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04 마지막 부분에서 서재가 완성된 후 아내가 차려 낸 조출한 술상에 벗들이 가져온 꾸러미를 펼쳐 놓자 잔칫상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 글에서 '나(이덕무)'가 아내와 친구들이 방을 잔칫상으로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거나, 아쉬움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다.

05 ㉠ '이제 보니 그가 아끼던 책들이 마당에 부러 놓은 나무가 되어 내 집으로 찾아온 모양이다.'를 통해 '나(이덕무)'

는 친구인 서상수가 자신의 책들을 서적상에 팔아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집에 나무를 사서 보냈다고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은 서재의 실제적 크기와 친구들이 만들어 준 서재가 ‘나(이덕무)’에게 주는 만족감의 크기를 언급하여 ‘나’가 느끼고 있는 기쁨과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07** 이 글의 글쓴이는 ‘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니체가 말한 “동정이 아니라 우정!”이라는 구절을 제시한 후 이어지는 문단에서 ‘우정’과 ‘동정’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혼용하는 ‘동정’과 ‘우정’의 의미를 니체의 생각을 통해 구분하여 전달하고 있다.

③ (나)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돕는 일과 같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니체가 생각하는 ‘우정’과 ‘동정’의 개념을 살펴보고 있다.

④ (라)에서는 니체가 한 말 중 친구에게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도록 하라는 비유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풀이하며 니체가 생각하는 우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08** (나)에서 상대를 동정할 때는 그가 홀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에서 ‘동정’은 상대에 관한 믿음과 존중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은 내가 주는 돈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그만둘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지 않고 하는 행위이므로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동정’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09** (라)에서 언급하고 있는 ‘딱딱한 야전 침대’는 건강한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니체는 진정한 친구라면 야전 침대처럼 지친 친구에게 일시적인 휴식처가 되어 주되 상대가 휴식에 안주하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0** (마)에 따르면 니체가 생각하는 ‘동락’은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다.

**11** (마)에서 우리는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성공한 타인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또한 성공한 사람보다 못한 자신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보다 친구의 기쁨을 함께 하는 것, 즉 동락이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가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해 속상해하는 <보기>의 글쓴이에게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2** 이 글은 (가)와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나), (다), (라)에서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 (라)에서는 인간의 뇌가 커진 이유와 관련된 가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주요 용어의 개념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이 글에서 글쓴이가 묻고 청중이 답하거나, 청중이 묻고 글쓴이가 답하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다)와 (라)에서 인간의 뇌가 커진 이유에 대한 두 가설을 소개하고 있을 뿐,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은 소설 속 인공 친구를 소개하며 왜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지 탐구하고 있을 뿐, 낯선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3** (나)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맹수에게 사냥당하기 쉬운 대상일 것이었다고 했고, (다)에서 뇌가 급격하게 커진 호모사피엔스가 높은 지능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맹수의 공격을 이겨 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보다 호모사피엔스의 뇌의 크기가 더 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나)에서 현생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맹수에게 사냥당하기 쉬운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살아남은 맹수는 과거 맹수의 후손이므로 과거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는 큰 위협이었을 것이다.

④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에렉투스, 호모사피엔스 모두 인류와 관련이 있다.

⑤ (라)에서 ‘인류의 뇌가 급격하게 커진 것이 호모사피엔스만큼 지능이 뛰어나지 않았던 호모에렉투스 시점’이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호모에렉투스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마)를 고려하면 진화학자들이 인류의 뇌가 커지게 된 핵심 요인으로 친구를 꼽는 이유는 더 많은 친구를 확보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간의 거래 관계 등 기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의 크기가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 15 ㉠은 형편이 좋을 때는 ‘나’의 곁에 사람들이 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의 곁에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다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염량세태(炎涼世態)’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문전성시(門前成市):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집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함을 이르는 말로 사람이 아주 많아서 매우 붐비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이르는 말로 불행한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사용한다.

④ 지기지우(知己之友):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로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는 친구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지금의 좋고 나쁨이 훗날 어떻게 바뀔지 모를 때 사용한다.

- 16 (마)에서 최근의 가설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이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다.

활동 응용 문제

• 262-267쪽

- 01 ㉠ 02 ㉠ 03 ㉡ 04 ㉠ 05 ‘친구’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 ㉠ → ㉡ → ㉢  
14 ㉡

- 01 ‘글 1’에서 ‘나(이덕무)’의 벗들은 자신들의 책을 팔아 ‘나’에게 서재를 만들어 주었다. 벗들은 ‘나’의 서재가 완성된 후에도 함께 기뻐했을 뿐, 생색을 내지는 않았다.

- 02 ‘글 2’에 제시된 니체의 견해에 따르면 우정은 서로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것이다. 니체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면 상대방 나의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상대를 독려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니체는 우정에는 상대에 관한 존경과 존중이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② 니체는 우정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가 동락, 즉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③ 니체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관계라고 본다.

⑤ 니체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면 상대가 좌절에 빠져 있으면 상대를 위로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 03 ‘글 3’의 글쓴이는 우리가 인공지능 친구를 계속 구상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가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기술을 활용해 인공적인 친구라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04 ‘글 1’, ‘글 2’, ‘글 3’은 모두 ‘친구’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

- 05 학생은 친구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는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 1’, ‘글 2’, ‘글 3’을 수집하여 읽었다.

- 06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읽은 후, 자신의 읽기 전략을 점검할 때 읽기 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보통 읽기 목적은 글을 읽기 전에 설정해야 한다.

- 07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동일한 화제에 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쓴 글들을 독자의 관점과 읽기 목적에 맞게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할 때에는 글쓴이의 관점만 중시하며 읽어서는 안 된다.

- 08 글을 읽고 발표를 준비할 때는 글의 내용에서 주제에 맞는 정보를 필요에 따라 선별해서 활용해야 한다.

09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에 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쓴 글을 읽기 목적과 읽기 전략을 고려하며 읽는 것이다. 따라서 화제와 관련이 없는 글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도 선정해서는 안 된다.

10 제시된 자료의 책 제목에는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 모듬은 '사랑'이라는 화제에 관해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기 위해 제시된 책들을 선정했을 수 있다.

11 독서 일지에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읽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등 책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적어야 한다. 책 내용과 관련이 없는 책의 두께와 소비자 가격은 독서 일지에 적지 않는다.

12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할 때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상상해서 쓰기보다는 책을 다시 보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읽은 책의 글의 형식이 설명하는 글인지 주장하는 글인지 아니면 어떤 장르의 문학 작품인지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② 읽은 책의 글쓰기가 화제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관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글쓰이의 생각에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④ 책을 읽으면서 나의 내적 성장을 위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13 주제 통합적 읽기는 화제나 주제를 정하여 읽을 글들을 수집하고(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자기 말로 이해한 후(ㄱ), 읽은 글의 쟁점이나 주제를 분석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ㄷ), 자기 생각을 확정하고 구성하여 뒷받침하는(ㄹ) 과정으로 진행된다.

14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에 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쓴 글들을 읽기 목적과 읽기 전략에 맞게 비판적으로 읽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쓰이의 관점과 읽는 사람의 관점을 일치시키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와 거리가 멀다.

**소단원 평가**

• 271~274 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예시 답안** 참고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예시 답안** 참고 11 ② 12 ④  
13 ②

01 (가)에서는 친구들의 배려에 감사하는 '나'의 심리를 드러내어 친구의 처지를 생각하여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특정 인물인 '나(이덕무)'의 시점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만,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에는 특정 인물의 일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정 인물의 일화가 제시된 것은 (가)이다.

④ (나)에서는 '친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친구라는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는 소설이고, (나)는 주장하는 글로 형식이 다르다.

02 (나)의 글쓴이는 진정한 친구란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들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라고 보고, '오늘날 온라인상에 있는 그 많은 친구는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나요?'라고 질문하면서 온라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는 온라인에서 진정한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03 ㉠은 '나'의 형수와 조카들이 있는 방으로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다. ㉡은 '나'와 동생, 아버지가 쓰는 방으로, '나'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나'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나'는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고 썩은 초가지붕에서 흘러내린 누런 물에 친구들의 옷이 누렇게 물들기도 한 이 방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 ㉢은 '나'를 위해 친구들이 새롭게 지어 준 방으로, '나'는 이곳에서 '나'를 배려하는 벗들의 마음을 은은하고 정겹다고 느끼고 있다.

04 (나)를 읽은 학생은 내가 혜택을 주지 못하자 나를 떠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나)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은 이득에 따라 친구를 선택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로 보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인공 친구를 진정한 친

구로 떠올릴지도 모른다는 (나)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진정한 친구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학생은 진정한 친구란 내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나의 곁에 있어 주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05 예시 답안 ①** (나)의 글쓴이는 서로 간의 거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만큼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의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벗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혜택이 없어도 나를 위해 기꺼이 베풀었고 이에 대한 보답조차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시 답안 ②** (나)의 글쓴이는 서로 간의 거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만큼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의 ‘나’는 이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벗은 비록 물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벗들은 말없이 나를 위해 서재를 지어 주었고, ‘나’ 역시 없는 환경에서도 벗들이 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온 가족과 함께 노력하였다. 아마도 ‘나’는 친구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가)의 ‘나’ 역시 친구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받은 것을 소중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출제 의도** (가)와 (나)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가)에 제시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유를 서술하였다 하더라도 주장과 이유가 타당하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나)의 견해를 정확히 서술하고, (가)의 ‘나’가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이유와 함께 서술한 경우	6점
(나)의 견해를 서술하고, (가)의 ‘나’가 동의 여부에 대해 이유와 함께 서술하였으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	4점
(나)의 견해를 부정확하게 서술하며, (가)의 ‘나’가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나)의 견해는 서술하지 못하고 (가)의 (가)의 ‘나’ 입장에서 동의 여부와 그 이유만 단순히 서술한 경우	2점

**06** ㉠ ‘그들’은 ‘나’를 위해 아끼던 책을 내놓은 ‘나’의 친구들이고 ㉡ ‘인공 친구’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주는 기능을 지닌 로봇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즉, ㉠과 ㉡는 모두 친구를 위해 행동하며 친구에게 행복을 안겨 주는 존재이다.

**오답 풀이** ㉢ (나)에 따르면 ㉣는 상황이 나빠지면 곁을 떠나 버리는 인간과 달리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이다.

㉥ ㉦가 아니라 ㉧가 친구의 호의에 감사하며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 ㉩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온라인상의 존재가 아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도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07** 이 글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철학자인 니체가 우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며 참된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08** 니체는 “그대에게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그의 고민에 휴식처가 되도록 하라. 그러나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계속 누워서 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친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기력을 회복하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09** 최선을 다한 친구가 시험에 떨어져 좌절하고 있을 때 다음 시험을 준비하자고 제안한 학생 4는 친구의 잠재력을 믿고 독려하고 있으므로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친구에 가깝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재능을 가진 친구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이를 열등의식이라고 볼 것이다.

② 학생 2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니체는 이와 같은 행위를 동정이라고 볼 것이다.

③ 학생 3은 자신의 기록보다 못한 친구의 기록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 니체는 이를 진정한 친구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⑤ 학생 5는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는 있지만, 자신의 성적이 더 높은 것에 안심하고 있다. 니체는 이를 진정한 친구의 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다.

**10 예시 답안 ①** 나는 벗들의 행동이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니체는 우정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벗들은 ‘나(이덕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

문을 이어가고 벗들과의 교류를 계속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서재를 지어 준 것이며 ‘나(이덕무)’가 혹시 마음 상할까 염려되어 말없이 실천에 옮긴 것이기 때문이다.

**예시 답안 ②** 나는 벗들의 행동이 동정이라고 생각한다. 니체는 우정이란 좌절에 빠진 상대가 다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벗들이 ‘나(이덕무)’에게 돈을 모아 서재를 지어 준 일은 그의 형편을 근본적으로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다. 벗들은 ‘나(이덕무)’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덕무)’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을 믿고 독려했어야 했다.

**출제 의도** 글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나)에서 우정/동정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를 사례 분석의 근거로 삼아 서술했다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나)의 내용을 서술하고, 사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나, 주장과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나)의 우정 혹은 동정의 의미를 서술한 후 해당 사례가 우정/동정인 이유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6점
(나)의 우정/동정의 의미에 대한 서술이 부정확하여 해당 사례가 우정/동정인 이유가 피상적이거나 불충분한 경우	3점
(나)의 우정/동정의 의미를 서술하지 못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서술한 경우 혹은 (나)의 우정/동정의 의미만 밝히고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 경우	2점

**11** (가)에서 니체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관계로 보았다고 했다.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끼리 만나야 한다는 것은 니체의 견해와 거리가 멀다.

**12**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글에 제시되어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 간의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해야 한다. 각 글에서 ‘평등’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면 각 글에서 언급한 쟁점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통된 부분만 정리하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로 바람직하지 않다.

**13** 읽기 전략은 크게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글을 읽고 깨달은 점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보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대단원 평가**

278~283 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예시 답안 참고 06 ④  
07 ③ 08 예시 답안 참고 09 ④ 10 ② 11 ① 12 예시 답안  
참고 13 ④ 14 ④ 15 ④ 16 ⑤

**01** (가)에서 국내 언론 매체의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여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도 확인하지 않는 자료가 기사화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나)에서 2021년 11월 13일 자의 실제 신문 기사를 제시하여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가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윗글은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 문제를 보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영국의 언론 매체에 대해 언급하고 (다)에서 미국의 언론 매체와 국내 언론 매체를 비교하고 있다. 이는 국내 언론 매체의 우수한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후 위기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이 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가)에서 국내 언론사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국내 언론사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또 (나)에서 전문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통계 자료이다.

③ 이 글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언론 매체의 역할을 시대순으로 서술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다)는 기후 보도와 관련한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정치·경제·사회 분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 보도한 모든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02** (다)에서 미국의 언론 매체는 선거 기간에 각 후보의 기후 위기 공약을 점검하는 등 감시와 비판을 진행하지만, 국내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에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아 감시와 비판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03 (다)에서 글쓴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04 [A]에서는 특정 시기에만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 관련된 보도가 집중된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와 관련된 국제 행사가 있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별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 보도 건수를 한눈에 비교하기 쉽도록 막대그래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B]에서는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와 관련된 전체 보도 중 기업을 홍보하는 목적을 가진 보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표 또는 원그래프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주제를 보도한 비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05 **예시 답안** ㉠ ‘기후 위기’에는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관점이, ㉡ ‘골치’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폐기물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 신문 기사에도 신문 기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문 기사를 읽을 때에는 사용한 용어나 사진, 인용 자료 등에 어떠한 관점과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출제 의도** 매체 자료에 담긴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적 매체 읽기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예시 답안 외에도 신문 보도를 비판적으로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와 ㉡에 드러나 있는 관점에 대해 적절히 서술하고,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신문 기사에 드러난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6점
㉠와 ㉡에 드러나 있는 관점에 대해 적절히 서술하였지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신문 기사에 드러난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점
㉠와 ㉡에 드러나 있는 관점에 대해 미흡하게 서술하였지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신문 기사에 드러난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06 (다)에서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언론 매체를 통해 자료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언론 매체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07 <보기>에서는 신문 기사의 편집 과정에서 편집자의 가치 판단이 스며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그 매체 자료가 편집된 것임을 인지하고 거기에 어떠한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지, 그 가치 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따지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언론 매체가 어떠한 기업의 친환경 제품을 홍보한다면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되고, 그 제품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08 **예시 답안** ㉠의 앞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양은 279만 4천 톤이지만, ㉡의 뒤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국내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양은 2만 935톤으로 전망된다. 즉, ㉠의 문제점은 ㉡과 근거 자료의 내용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출제 의도** 기사에 제시된 자료가 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과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모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에 드러난 문제점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4점
㉡에 드러난 문제점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9 <보기>는 지면 광고로, ‘섬표’라는 음료수의 라벨에 멸종 위기 동물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 제품이 지구 생태계 문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이 음료를 구매하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고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광고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광고가 멸종 위기 동물의 가치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관련짓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나)를 통해 서상수가 ‘나’의 서재를 지어 주고자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책을 내놓았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서상수는 백탁 아래 산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나’가 살고 있는 집은 바깥채가 따로 없이, 좁은 마루를 사이에 둔 방 두 칸이 전부라고 하였고, (나)에서 다른 벗들도 모두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하였다.

④ (다)에서 ‘나’의 집 마당에서는 새로운 집 한 채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나’의 아내는 집을 짓는 틈틈이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하여 술상을 차리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11 ‘나’는 ‘나’에게 서재를 지어 준 벗들의 따뜻한 마음을 은은하고 정겹게 느꼈기 때문에 (다)에서 벗들이 지어 준 서재의 지붕과 흠벽에 대해서 ㉠과 같이 느낀 것이다. 또한 ‘나’는 친구들이 지어 준 서재의 크기는 좁지만 벗들의 배려 덕분에 온 세상을 차지한 것처럼 넓게 느꼈기 때문에 (라)의 ㉡과 같이 표현한 것이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과 ㉡에는 벗들의 마음을 감사히 여기는 ‘나’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예시 답안** (라), ㉠ ‘동락’은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라)의 벗들은 ‘나’의 기쁨에 대해 질투나 불만을 느끼기보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동락’ 외에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등과 관련지어 서술한 것은 문제에서 묻는 바와 동떨어져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의 예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라)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동락의 개념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3점
㉠의 예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라)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동락의 개념은 적절히 언급하였지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의 예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라)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였지만, 동락의 개념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13 (가)에서 니체는 진정한 친구란 상대의 잠재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위로와 힘을 주는 동시에 그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존재라고 했다. (나)의 글쓴이는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삼는 것을 상상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가 현실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가)의 ‘니체’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는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친구에게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② 니체의 견해와 관련이 있다.

③ 니체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동정이라고 생각한다.

⑤ (나)의 글쓴이의 견해와 관련이 있다.

14 (나)의 글쓴이는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가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5 ㉠ ‘나의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주는 혜택을 받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도망가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상황이 나빠지면 우정을 유지하는 이들이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가)에 제시된 니체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은 ‘나’가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니체는 진정한 우정은 친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잠재력을 믿고 존중하며 독려한다고 보는데 ㉠은 니체의 견해와 거리가 멀다.

16 수민이는 (가)와 (나)의 견해를 종합한다고 하였다. 친구를 억지로 독려하는 것은 친구에 대한 (가)의 견해에, 친구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친구에 대한 (나)의 견해에 해당한다. ⑤는 이러한 것이 모두 친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좌절에 빠진 친구를 평소처럼 대하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⑤처럼 수민이의 의견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소통하고 참여하라

### 01 매체 소통 문화와 공동 보고서 쓰기

활동 응용 문제

• 291~301쪽

01 (1) 대중 (2) 정보 (3) 활자 02 ㉠ 03 ㉡: 주제 ㉢: 목차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01 매체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따라 정보 매체와 오락 매체로, 내용물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활자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로 구분하기도 한다.
- 02 신문 같은 인쇄 매체나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를 대중 매체 혹은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장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는 ‘디지털 미디어, 멀티미디어’이다.
- 03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끼리 모둠을 구성한 후 보고서의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공동 보고서 쓰기를 위해 자료 조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 보고서의 목차를 구성해야 한다.
- 04 보고서 목차에 따르면 수민이네 모둠은 보고서 작성 전 조사 기간을 15일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실시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5 수민이네 모둠이 구성한 보고서의 목차에는 조사 동기와 방법, 절차, 결과, 결론은 포함되어 있으나 역할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06 수민이네 모둠의 프로젝트 활동 일지 ㉡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 신문 기사, 뉴스, 그래프뿐이다. 즉 수민이네 모둠은 전문가를 인터뷰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 07 수집한 자료를 선별할 때는 보고서의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자료 2>는 개인 방송이 전자 상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주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는 관련이 없다.

- 08 <복합 양식 자료 1>은 연령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시간을 보여 주는 그래프로, 이 자료는 사람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를 보여 주기에 적합하다.
- 09 <복합 양식 자료 2>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공익 광고 동영상으로, 시청각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이 자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는 출처(㉢)를 하단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를 재가공한 것인지는 제시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없다.
- 10 공동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느낀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공동 보고서의 조사 절차에서는 조사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등을 밝혀야 하고(㉠),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항목에 맞게 제시하고(㉡). 복합 양식의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참고한 자료의 출처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
- 11 수민이네 모둠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2 보고서에서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 연도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3 학생의 댓글 가운데 ‘너희 모둠원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 댓글을 작성할 때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4 공동 보고서 쓰기 활동 뒤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은 협업, 기여도, 친구와의 소통, 책임감, 자기 성찰 등이 있다.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보다 더 많이 기여한 모둠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자기 성찰을 하기보다 결과에 대해 친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점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공동 보고서 쓰기 활동 뒤 모둠 안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책임감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항목이다.  
② 공동 보고서 활동을 마친 뒤 느낀 점이나 보완할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 성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항목이다.  
③ 공동 보고서 작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협력 능력을 평가할 때 타당한 항목이다.  
④ 공동 보고서 작성 후 팀원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대인 관계 능력 측면에서 적절한 항목이다.

- 01 ② 02 ① 03 **예시 답안** 참고 04 ④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조사 보고서 11 **예시 답안** 참고  
 12 ③

- 01** 미디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매개체’ 또는 ‘매체’이다.
- 02** 편지와 전자 우편 중에서 시간과 물리적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자 우편이다. 편지는 부치고 나서 상대방이 받아 보려면 며칠이 걸리고 해외로 보내면 더 오래 걸리는 등 시간과 물리적 거리에 제약이 있다.  
**오답 풀이** ②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과거에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가능했다.  
 ③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메시지에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이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와 오락을 전달하는 것을 방송 매체라고 하고, 이는 익명의 다수 대중을 상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대중 매체’ 혹은 ‘매스 미디어(mass media)’라고 한다.  
 ⑤ 디지털 미디어, 멀티미디어는 기술이 발전하여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 03** **예시 답안** 인터넷 등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 우편, 인터넷 신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이 확장되었다. 전자 우편을 이용하면 기존의 편지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면 나라의 경계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메시지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낼 수 있다.  
**출제 의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새로운 매체의 특징이 소통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채점 기준	배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새로운 매체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친 영향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를 두 가지 이상 제시했으나 새로운 매체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친 영향을 알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를 한 가지만 제시하고, 새로운 매체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친 영향을 미흡하게 제시한 경우	1점
---	----

- 04** 문자, 소리, 시각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양식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복합 양식 자료라고 한다. (가)는 신문 기사로 문자로만 이루어진 자료이고, (나)는 개인 방송의 위반 사례를 다룬 영상 매체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10대 94.7%, 20대 77.9%, 30대 70.0%, 40대 53.4%, 50~60대 37% 순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는 영상의 자막을 통해 개인 방송에서 전자 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를 정리하고 있다.  
 ③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밝혀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⑤ (가)에서는 세대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현황을, (다)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군의 이용량 증가 상위 5개 콘텐츠를 제시할 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05** (나)는 개인 방송의 법 위반 사례를 다룬 영상 매체 자료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의 특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수민이네 모둠의 보고서에서 (나)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신문 기사로, 세대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통계를 통해 해당 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가)는 1이 아니라 3-(1)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 (나)는 개인 방송의 법 위반 사례를 다룬 영상 매체 자료로, 바람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방안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3-(3)에서 (나)를 활용할 수 없다.  
 ④ (다)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군의 이용량 증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 주는 그래프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특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3-(2)에서 (다)를 활용할 수 없다.  
 ⑤ 연령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가 아니라 (가)이다.
- 06** (가)는 수민이네 모둠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성한 보고서의 목차이다. 보고서의 목차는 보고서의 짜임새, 즉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를 독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07** (나)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연령별 사회 관계망(SNS) 서비스 이용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오래 사용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2에서 조사 방법으로 설문 조사와 면담을 언급하고 있다.

② (나)의 3-(1)에서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③ (나)의 1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좀 더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고 했다.

④ (나)는 1. 조사 동기와 목적, 2. 조사 절차, 3. 조사 결과로 내용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08** (가)에서 조사 동기와 목적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일상에서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나)의 1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소통 문화의 변화가 매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와 (나)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④와 같은 항목으로 수민이네 모둠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공동 보고서를 쓸 때는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흥미로운 자료만 수집할 경우 보고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10** (나)는 조사 보고서이다. 왜냐하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 면담 등의 방법으로 쓴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11** **예시 답안** 수민이네 모둠은 제시된 자료를 3-(3)에서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료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과 관련한 공익 광고 동영상으로, (가)에 제시된 조사 결과 3-(3)에서 바람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방안에 관해 언급할 때 자료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공동 보고서를 쓸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하여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수민이네 모둠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적절하게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알맞게 제시한 경우	5점
수민이네 모둠이 제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적절하게 썼지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미흡하게 제시한 경우	3점

**12**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목적, 조사 절차, 조사 결과, 결론으로 구성된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보고서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③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02 사회적 독서 활동 발표하기

활동 응용 문제

• 313~321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⑤ 05 ⑤ 06 해시태그 07 ④  
08 ㄷ → ㄹ → ㄴ → ㅂ → ㄴ → ㄱ 09 ② 10 ③ 11 ⑤  
12 ④ 13 ㉠: 발표 내용, ㉡: 표현

- 01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독서의 개념이다. 여가 시간에 소설을 읽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주체적으로 읽는 독서 활동인 개인적 독서에 해당한다.
- 02 사회적 독서는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지식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는 독서 활동이다. 책을 읽고 혼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 독서의 효과이다.
- 03 독서 일지에는 ‘책 제목, 글쓴이,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독서 일지에 독서 동아리 운영 방법을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동아리 홍보 문구는 독서 동아리 활동 내용과 거리가 멀다.
- 05 궁금한 점에 대해 혼자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은 개인적 독서 활동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독서 활동과 관련 있다.
- 06 해시태그는 특정 핵심어 앞에 ‘#’ 기호를 붙여 써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메타 데이터 태그의 한 형태로, 이 태그가 붙은 단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07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예상 청중을 분석할 때에는 청중의 연령대(①), 관심사(②), 지적 수준(③), 주제에 대한 태도(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설득 전략은 발표자가 예상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세워야 하는 것으로,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08 발표는 ‘발표 주제 및 목적 정하기(ㄷ) → 예상 청중 분석하기(ㄹ) → 발표 전략 계획하기(ㄴ) → 발표 내용 조직

하기(ㅂ) → 발표 자료 만들기(ㄴ) → 발표 연습하기(ㄱ)’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 09 우진이네 모둠에서 만든 활동 발표 자료 중 슬라이드 1, 2, 3에서 동아리의 이름이 ‘별★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슬라이드 1~4 가운데 동아리 이름의 뜻을 밝히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슬라이드 1의 ‘다 같이 즐겁게 책 읽고 이야기해요’에서 동아리의 활동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③, ④ 슬라이드 3에서 동아리가 선정한 추천 도서인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개하고 ‘함께 읽어 볼까요?’라면서 추천 도서를 읽어 보자고 권하고 있다.  
⑤ 슬라이드 2에서 독서 동아리 모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관련 문외는 1학년 1반 독서 동아리 별나고의 조장에게 연락주세요’라면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10 매체 자료는 그림, 사진, 슬라이드 등의 시각 자료, 음악, 효과음 등의 청각 자료,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 실물, 모형 등의 실물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우진이네 모둠은 슬라이드 2와 3에서 책의 표지를 활용하였고, 슬라이드 4에서는 독서 동아리의 활동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우진이네 모둠이 제작한 슬라이드에 가장 많이 활용한 자료는 시각 자료이다.
- 11 슬라이드 1에서는 ‘별★나고’라는 동아리의 이름(①)과 ‘다 같이 즐겁게 책 읽고 이야기해요’에서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②)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활동 장소를 우리 학교 도서관이라고 밝히고 있고(③), 모집 조건으로 ‘우리 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④). 그러나 동아리에서 선정한 독서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12 발표 평가는 크게 발표자의 입장인지 청중의 입장인지에 따라 점검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④는 발표를 들은 청중의 입장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는 모두 발표자의 입장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 13 제시된 평가 항목은 사회적 독서 활동에 대해 발표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상호 평가와 관련 있는 것이다. 상호 평가는 크게 발표 내용과 표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01 ① 02 예시답안 참고 03 ① 04 ④ 05 ④ 06 ③  
07 ② 08 ⑤ 09 예시답안 참고 10 ③ 11 ② 12 ①

01 (가)는 독서 동아리 운영 방법과 관련된 활동 계획이고, (나)는 독서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02 **예시답안** ㉠과 같은 활동은 사회적 독서 활동이다.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더욱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고 사회 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출제 의도** 사회적 독서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독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을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정확히 제시하고, 이러한 활동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을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정확히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가운데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을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정확히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3 ‘인공지능을 주제로 주최한 공개 강연’은 사회적 독서 활동의 한 형태이다. 동아리원은 이 강연에 참석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면서 해시태그를 함께 작성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자 했다. 글과 함께 제시한 사진은 청각 자료가 아니라 시각 자료이다.

04 학생 4는 지역 도서관에서 개최한 북 콘서트에 참여하여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책을 낭독하는 것을 보고, 작가를 비롯한 다른 독자들과 대화를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4가 작가로 해당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05 발표 전략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발표 주제 및 목적 정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②, ③ 예상 청중 분석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⑤ 발표 자료 만들기 단계에 해당한다.

06 (가)는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예상 청중을 분석한 내용이다. (나)는 발표를 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조직하여 정리한 것이다. 발표는 크게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구성되는데 발표의 정리부에서는 발표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을 추가하는 등 발표를 정리하는 내용이 전개되어야 한다. (가)에서 발표의 주제가 우리 독서 동아리가 진행한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하였으므로, ㉠에서는 동아리에서 실시한 사회적 독서 활동이 나에게 준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7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혼자 독서를 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독서에 해당한다.

08 발표의 정리부에서는 발표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전개되어야 한다. 정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발표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09 **예시답안** 학생들은 예상 청중이 시각 자료에 친숙하다는 점과 우리 동아리만의 구체적 활동 내용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예상 청중의 연령대별 특성과 관심사). 따라서 ㉠을 통해 동아리의 독서 활동을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써 예상 청중의 관심을 끌고자 한 것이다.  
**출제 의도**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를 준비할 때 복합 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학생들이 예상 청중의 무엇에 대해 고려했는지를 정확히 서술하고, ㉠을 활용할 때의 기대 효과를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학생들이 예상 청중의 무엇에 대해 고려했는지를 정확히 서술했지만 ㉠을 활용할 때의 기대 효과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학생들이 예상 청중의 무엇에 대해 고려했는지를 미흡하게 서술했지만 ㉠을 활용할 때의 기대 효과를 알맞게 서술한 경우	2점

10 제시된 발표 자료에서 동아리를 만든 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슬라이드 1의 ‘다 같이 즐겁게 책 읽고 이야기해요’에서 독서 동아리의 활동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슬라이드 2의 ‘한 권의 책을 읽고 마음을 나뉘움’에서 독서 동아리에서 실천하고 있는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슬라이드 3에서 책 표지 사진을 제시하여 동아리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슬라이드 4에서 독서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활동의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11** 청중의 입장에서 발표에 대해 점검할 때는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메모하며 들었는지, 발표의 목적, 의도, 핵심 내용, 흐름에 집중하여 들었는지, 발표를 듣고 난 후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12** 청중은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메모를 하면서 듣고, 발표의 목적, 의도, 핵심 내용,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 또 발표를 듣고 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발표자와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든’처럼 발표 중간에 발표자의 말을 지적하는 것은 발표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발표 중간에 발표자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질의응답 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단원 평가** 332~336쪽

01 ① 02 ④ 03 ④ 04 예시 답안 참고 05 ② 06 ④  
 07 예시 답안 참고 08 ① 09 ④ 10 ② 11 ② 12 ⑤  
 13 ② 14 ① 15 ③ 16 ④ 17 예시 답안 참고

**01** 이 글은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이 확장된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매체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3문단에서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매체를 인쇄 매체, 방송 매체로 구분하였고, 4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따라 정보 매체, 오락 매체, 내용물을 전달하는 형식에 따라 활자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로 분류하고 있다.

③, ④ 1문단에서 편지와 전자 우편, 신문·방송과 인터넷 신문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특성을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의 매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의 ‘미디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에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2** 방송 매체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이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와 오락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 오답 풀이** ① 인터넷의 발달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줄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졌다.
- ②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메시지에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보내는 양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과거에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신문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신문으로 변화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 ⑤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미디어나 멀티미디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03** 글쓴이는 ‘미디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이 질문은 독자가 미디어에 대한 배경지식을 떠올리게 하여 흥미를 유발할 뿐 독자의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04** **예시 답안**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양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 ‘대중 매체’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보내는 메시지를 다수의 대중이 전달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출제 의도** 기존의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각 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와 ㉢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4점
㉠와 ㉢ 가운데 하나의 특성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5** 보고서는 보고 내용에 따라 조사 보고서, 답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로 나눌 수 있다. 수민이네 모둠이 작성한 목차의 조사 절차 중 조사 방법에 따르면 수민이네 모둠은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면담, 설문 조사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므로 수민이네 모둠이 쓰고자 하는 보고서의 유형은 조사 보고서이다. 참고로 특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한 보고서는 답사 보고서이다.

**오답 풀이** ① 모둠원 역할 분담에 따르면 수민과 우진은 문헌 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현아와 은혁은 설문 조사와 면담을 하기로 하였고 모듬원 전체가 공동 보고서를 쓰기로 하였다.

③ 보고서 목차에서 조사 동기와 목적에 따르면 수민이네 모듬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일상에서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④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서는 보통 조사한 세부 내용을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목차에 따르면 수민이네 모듬은 조사 결과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 매체 특성, 바람직한 사용 방안으로 조사한 내용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⑤ 수민이네 모듬은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설문 조사, 면담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06**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한 세부 내용을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때 인용한 자료가 있다면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이유나 근거는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07 예시 답안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를 조사할 때는 조사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용자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 답안 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를 조사할 때는 조사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수의 사용자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조사 보고서를 보고 조사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보고서 목차에 제시된 조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방법이 ㉠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방법인 이유를 알맞게 설명한 경우	5점
보고서 목차에 제시된 조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였으나, 해당 방법이 ㉠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방법인 이유를 미흡하게 설명한 경우	2점

**08** ‘연령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시간을 보여 주는 그래프’는 사용자들의 연령에 따라 이용 시간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을 뿐 주중과 주말의 이용 시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다른 색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③ ㉠은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시간을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시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④ ㉠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댓글 이미지와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등의 자막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⑤ ㉠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바람직한 사용 방안을 홍보한다는 목적을 지닌 공익 광고이다.

**09** 복합 양식 자료는 표, 그래프, 사진, 그림 등의 시각 자료와 소리, 음악 등의 청각 자료,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로 나눌 수 있다. 대상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보여 줄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는 시청각 자료이다. 보고서에 시청각 자료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공동 보고서를 쓸 때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료의 출처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자료의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자료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② 공동 보고서를 쓸 때는 자료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보고서 주제에 맞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다.

③ 공동 보고서를 쓸 때는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⑤ 공동 보고서를 쓸 때는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하고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10** 보고서의 일반적인 구성 중 조사 절차에서는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1** 발표는 보통 ‘발표 주제 및 목적 정하기 → 예상 청중 분석하기 → 발표 전략 계획하기 → 발표 내용 조직하기 → 발표 자료 만들기 → 발표 연습하기’ 순서로 준비한다.

**12** <보기>에서 책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인 우리 사회에 다른 차별의 사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된 독서 일지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학생은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에서 우리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궁금했고,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에서 책을 읽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학생은 차별 또는 불평등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에서 애티커스 핀치라는 인물이 딸에게 해 주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담긴 쪽수가 292쪽이라고 밝힘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③ 학생은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종류의 차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차별 혹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사회적 독서는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지식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는 독서 활동이다. 동아리원들이 책을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개인이 원하는 책을 선정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독서에 해당한다.

**14** 책을 혼자서 주체적으로 읽는 습관을 형성하여 개인의 지적, 인격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 독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니라 개인적 독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다른 사람과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은 사회적 독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독서를 하게 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공유하면서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사회 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15** 슬라이드 2에서는 여러 가지 책의 표지 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슬라이드 1에서는 글자의 크기를 키우고 하늘색을 사용하여 '별★나고'라는 독서 동아리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

② 슬라이드 1에서는 독서 동아리의 모집 조건과 활동 장소, 활동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④ 슬라이드 3에서는 독서 동아리가 선정한 책인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의 표지 사진을 제시하고, '함께 읽어 볼까요?'라면서 독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⑤ 슬라이드 4에서는 독서 신문 만들기, 작가 초청 북 콘서트 등 독서 동아리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6** 슬라이드 2의 '독서 동아리 모임과 관련된 문의는 1학년 1반 독서 동아리 별나고의 조장에게 연락 주세요'를 통해 독서 동아리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나고의 조장에게 연락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7** **예시 답안** 동아리의 실제 활동 모습을 보여 주는 슬라이드 4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슬라이드 4에서 활동 사진과 활동명만 제시하지 않고, 해당 활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청중이 해당 활동에서 동아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출제 의도**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수정 대상이 되는 슬라이드가 4임을 밝히고, 슬라이드를 수정하는 방향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수정 대상이 되는 슬라이드가 4임을 밝혔으나, 슬라이드를 수정하는 방향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메  
모